I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31

2. 동남권 40

3. 충청권 47

4. 호남권 55

5. 대경권 63

6. 강원권 71

7. 제주권 78

1.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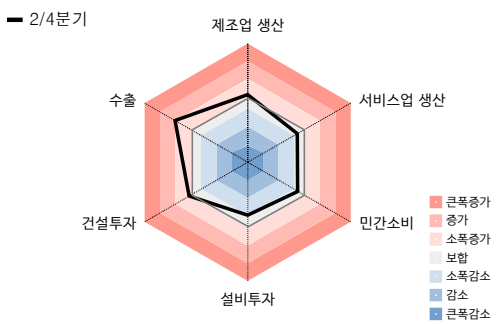
(1) 개 황

수도권 경기 보합

2024년 2/4분기 중 수도권 경기는 1/4분기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1/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동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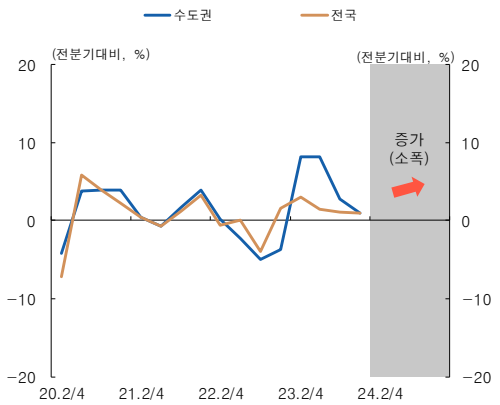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가 소폭 증가하였고, 석유화학·정제는 감소하였다. 반도체, 기계·장비, 의약품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자동차 업체의 설비전환 공사[1] 마무리 및 친환경차 생산라인 확대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는 IT기기의 OLED 도입 확대[2] 및 신제품 출시[3]에 따라 전분기보다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정제는 이전의 양호한 시장 상황에 따른 생산량 증대의 기저효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1) 기아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친환경차 생산을 위해 광명 2공장 설비 교체와 생산라인 개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보급형 전기차인 EV3를 6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2) IT 기기 OLED 패널 출하량(만대, OMDIA): (2023) 370 → (2024e) 1,210
3)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24가 역대 갤럭시 S시리즈 중 가장 많은 사전예약 수치를 기록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기조 종료에 따라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정상화[4] 되고 있으나, 제품별 재고 수준에 따른 선별적 생산 수준 조정으로 전체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지속[5]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비의 경우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 기계 수요 감소, 재고 증가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의약품은 전분기의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은 해외 수요 증가[6]로 인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투스택탠덤(Two Stack Tandem)[7] OLED 등 프리미엄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을 탑재하는 IT 제품이 확대[8]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철강은 건설 경기 및 내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 여력 둔화, 그간의 높은 생산수준[9]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AI 서버용 반도체의 높은 수요[10][11]가 지속되고 PC[12], 모바일, 일반 서버[13] 등 범용 반도체의 전방 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반도체(HBM 등)의 경우 높은 생산 난이도[14] 및 파운드리 생산능력 부족, 범용 반도체의 경우 공급업체들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생산 집중 영향으로 생산이 제약받으면서 전반적으로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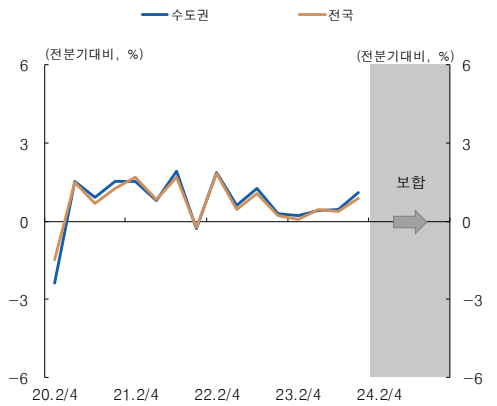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 보합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은 소폭 증가, 도소매업 및 금융·보험업은 보합 수준이었던 반면, 숙박·음식점업 및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업계에 따르면, D램의 총 웨이퍼 투입량이 2024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6.7일)이 있었으나 공장 자동화 등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6) 셀트리온은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 형태의 램시마SC를 미국 시장에 출시(2024년 3월)함에 따라 정맥주사 접종을 위해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었던 램시마IV에 비하여 의약품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7) 투스택탠덤(Two Stack Tandem) 기술은 발광층을 두 겹으로 쌓아 발광층이 하나인 '싱글 스택'(Single Stack) 방식보다 밝기는 2배, 수명은 4배 정도 확대할 수 있다. 애플은 신작 아이패드 프로 모델(2024.5.7일 출시)을 시작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미니·에어 모델에도 투스택탠덤 OLED 패널을 탑재할 계획이다.
8) LG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노트북용 투스택탠덤(Two Stack Tandem) 기술을 적용한 OLED를 DELL에 공급하였다.
9) 기아자동차의 2024년 1/4분기 중 국내 공장 가동률은 11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0) AI 반도체 시장 전망(십억불, Gartner): (2022) 42.2→ (2023) 53.7 → (2024^{e}) 71.3 → (2025^{e}) 92.0 → (2026^{e}) 116.3
11) 생성형 AI 기술의 고도화, 학습(training)에서 추론(inferencing) 영역으로의 AI 기술 확산 등에 따라 AI 관련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Window 10 서비스 종료 및 AI PC 도입과 더불어 기업체를 중심으로 PC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AI PC에 탑재되는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채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특히 2017년~2018년에 설치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서버(일반 서버) 교체 수요가 점차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4) 생산 측면에서 HBM은 DDR5 대비 다이(Die) 크기가 35~45% 정도 더 크고 수율은 약 20%p 낮으며, 웨이퍼 생산주기(TSV 공정 포함)는 약 1.5~2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운수업 생산은 여객항공 운항편수 및 여객수의 성장세[15]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확대[16] 등에 따른 해운·항공 화물물동량의 증가[17], 해상운임 상승[18]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쇼핑업의 경우 고물가 지속에 따른 외식수요 흡수, 여행 서비스 상품 수요 강세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대형소매점은 자동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중심으로 판매 부진이 이어져 매출[19]이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은행 대출[20]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미 연준 피벗 지연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 잔고[21]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세 둔화[22]로, 음식업은 외식물가[23]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재비[24]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매매거래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25]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휴·폐업 부동산중개업소가 증가하고 개업사무소는 감소[26]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15) 높은 해외여행 수요 지속에 따라 4월 중 인천공항의 여객항공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각각 2.8만편 및 556.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1% 및 37.4%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62.2%, +50.2%)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6) 업계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내국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항공 화물운송 매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
17) 4월 중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물동량은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하면서 전분기(+7.9%)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해운 화물물동량도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하여 전분기(+7.3%)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8)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에즈 운하 통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운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2024년 2/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항로를 수에즈 운하에서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임 단가가 상승한 데다, 수에즈 운하의 높은 항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이다.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홍해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993포인트에서 1월 말 2,179포인트, 5월 말 3,045포인트로 급등하였다.
19) 4월 중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3% 하락하며, 전분기 증가(+3.5%)에서 감소 전환하였다.
20) 은행 대출잔액 증감률(%, yoy): (가계) 2024.1/4분기 4.5 → 2024.4월 4.9
(기업) 2024.1/4분기 6.7 → 2024.4월 7.3
21)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qoq) : 2023.2/4분기 +20.0 → 3/4분기 +9.5 → 4/4분기 -28.9 → 2024.1/4분기 +29.6 → 24.4~5월 -3.7
증시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 잔액(%, qoq) : 2023.2/4분기 +2.8 → 3/4분기 -2.2 → 4/4분기 -8.4 → 2024.1/4분기 +9.2 → 24.4~5월 -2.4
22) 4월 중 외국인 방문객수는 146.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6% 증가하였으며 전분기(+98.5%)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2024.1/4분기 잠정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 중 77.3%가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부산(13.7%) 및 경기(10.1%)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방문율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23) 4~5월 중 수도권 외식서비스 물가는 전년동기대비(월평균) 2.9% 증가하였으며 전분기(+3.8%) 대비로는 다소 둔화되었다.
24) 4~5월 중 농축수산물 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10.6%로 전분기(11.0%)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5)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율(%, yoy): (매매) 2023.2/4분기 -2.5 → 3/4분기 57.8 → 4/4분기 52.6 → 2024.1/4분기 17.9 → 4월 30.2
(전세) 2023.2/4분기 -19.3 → 3/4분기 -3.0 → 4/4분기 2.2 → 2024.1/4분기 0.6 → 4월 8.7
26)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수(개, 월평균): 2023.1/4분기 1,339 → 4/4분기 1,255 → 2024.1/4분기 1,339 → 4월 1,366
개업수(개, 월평균): 2023.1/4분기 1,286 → 4/4분기 1,011 → 2024.1/4분기 1,286 → 4월 921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임금 상승 및 물가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개선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보험업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대형 IPO 계획[27]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업은 최근 매수심리 부진이 소폭 완화[28]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 DSR 규제,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해외여행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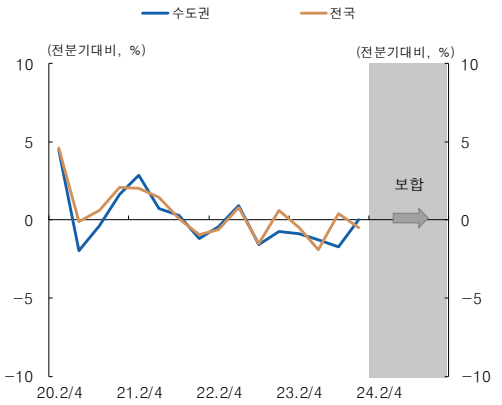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재화 소비는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내구재가 큰 폭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준내구재[29]는 의류[30] 등을 중심으로, 비내구재[31]는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내구재[32]는 자동차 및 통신기기[33]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재화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비스 소비의 경우 도소매업 및 금융·보험업은 보합 수준, 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나, 운수업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대비 보합 수준을 이어갔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 소비의 경우 가계 실질소득 개선 및 승용차, 통신기기 신제품 출시[34] 등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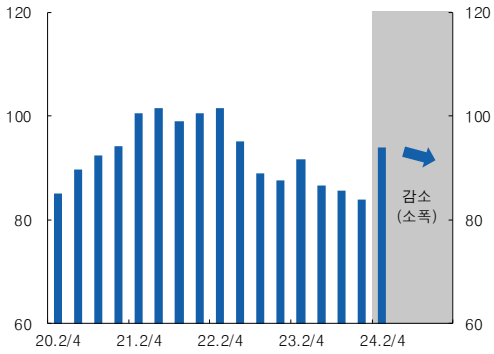
27) 하반기 중 케이뱅크, 시프트업 등 대형 IPO가 예정되어있다.
28) 4월 중 수도권 주택의 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 월평균 기준)는 89.5로 전분기말(1월 86.1 → 2월 86.7 → 3월 87.9)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한국부동산원)
29)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전국, 계절조정, %, qoq): 2024.1/4분기 –0.1 → 4월 0.5
30) 4월 중 수도권 지역 의류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하며, 전분기 감소(-0.2%)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31) 비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전국, 계절조정, %, qoq): 2024.1/4분기 0.2 → 4월 0.4 (화장품: 2024.1/4분기 -1.2 → 4월 4.9)
32) 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전국, 계절조정, %, qoq): 2024.1/4분기 -2.4 → 4월 –5.8
(승용차 : 2024.1/4분기 -10.3 → 4월 –13.2, 통신기기 및 컴퓨터: 2024.1/4분기 5.2 → 4월 –4.7)
33) 1/4분기 중 휴대폰 조기 출시 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영향을 받았다.
34)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이며,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소폭 감소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1/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의약품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목재·가구는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정제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설비투자실행 BSI(4~5월 실적 평균)의 경우 중소제조업의 투자심리 위축 완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반면,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35] 집중에도 불구하고 범용 제품 투자가 지연[36][37]되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 가구도 건설경기 악화 등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 외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정제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세로 고성능 반도체 공급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38]되는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39]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친환경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목적기반 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등 신성장 부문 중심의 설비투자[40]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필수 경상 투자[41]만 집행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정제, 철강 등의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기술 구현을 위한 고성능 반도체인 HBM의 공급 규모를 전년대비 각각 3배 및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실적발표(2024.1.31일) 당시 올해 2.5배로 늘렸던 생산역량을 1분기 실적발표(2024.4.30일)에서 올해 3배, 내년 최소 2배 이상으로 증액하였다.
36)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부문의 대형 고객사 부재로 당분간 시설투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파운드리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평택 반도체 4공장(P4)의 Phase 2(PH2)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 재개 일정이 다소 늦춰졌으며, 신공장 장비 반입 및 설비 업그레이드 일정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37) 4~5월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월평균, 관세청)은 전분기대비 9.8% 감소하였다.(전년동기대비 31.5% 감소)
38)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낸드플래시 생산공장으로 계획하였던 청주 반도체 공장(M15X)을 차세대 D램 생산시설로 변경하여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4.24일)하였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11월 양산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5.3조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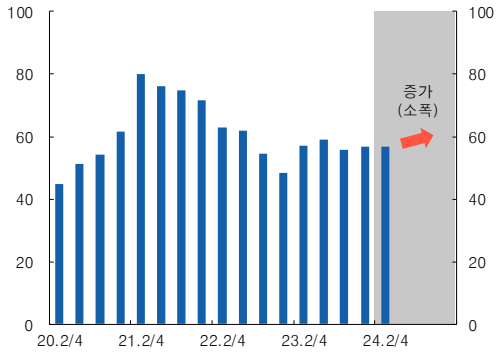
건설투자 소폭 증가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부동산 PF 보증지원 확대 조치[42] 등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이 확대[43]되면서 전분기의 부진을 만회하였으며, 공공부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영향으로 토목건설 신규 수주량[44]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건물 입주 물량 축소[45]와 그간의 신규 착공 및 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46] 증가 등이 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 업황B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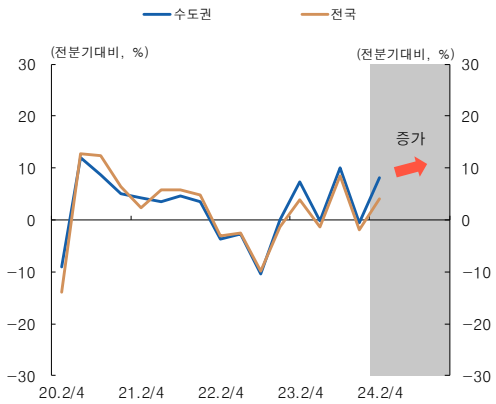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수출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의약품은 증가, 반도체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는 소폭 감소, 철강은 감소하였다.

39)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 팹리스·소부장 지원 펀드(1.1조원), 기반시설 구축(2.5조원) 등 약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2024.5.23일)하였다.
40) 기아는 올해 3.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중인데, 이는 지난해(2.2조원)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이 중 60% 이상을 국내 공장에 투자할 예정이다.
41) LG디스플레이는 2024년 중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3.6조원)보다 크게 축소된 2조원대로 집행할 계획이다.(LG디스플레이 2024.1/4분기 실적발표, 2024.4.25일)
42)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2024.3.28일)에 따라 PF대출 보증규모를 확대(25→30조원)하고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였다.
43) 4월 중 수도권 건물 착공면적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74.9%로 전분기의 감소(-17.2%)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되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착공 증가세(2024.1/4분기 –13.9% → 2024.4월 207.0%)가 두드러졌다.
44) 4월 중 수도권 토목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186.0% 증가하여 전분기(80.6%) 대비 큰 폭 확대되었다.
45)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2023년 19.0만호 → 2024년^{e} 16.5만호 → 2025년^{e} 11.4만호
46) 정부는 「PF 연착륙을 위한 PF 정상화 대책」(2024.5.14일)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5.31일)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세[47)] 지속, AI 서버 투자 확대, 모바일 및 PC OEM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 등 가격[48)] 및 물량[49)] 요인이 동반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유럽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 축소[50)]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북미지역에서 SUV 및 친환경차의 판매 호조[51)]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하였다. 의약품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용 OLED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수요의 국산화 흐름[52)]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으며, 철강의 경우 수출 판매단가는 강보합이었으나 수출 중량이 줄어들며 수출이 감소[53)]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2/4분기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 확대[54)], 메모리 반도체 초과수요[55)]로 인한 가격 상승세[56)] 지속, 미국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을 적용하는 IT 제품 확대(태블릿, 게이밍모니터 등)[57)],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의 교체 사이클 도래, 하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프리미엄 TV 수요 등으로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북미 및 유럽 시장 판매 확대가

47) 대만 지진(2024.4.3일 발생)의 영향으로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공장에 일부 피해가 있어 2/4분기 D램 고정 및 현물가격의 상승이 전망된다.
48) 4월 말 D램(DDR5 16GB) 및 낸드플래시(MLC 128GB) 고정거래가격은 연초 대비 각각 13.4% 및 3.8% 상승하였다.
49) 2024년 4~5월 반도체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14.3%)하였으며, 전분기(+13.4%)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50) 독일은 당초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조기 중단하였으며, 프랑스도 비유럽산 전기차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녹색 산업법(프랑스판 IRA)을 시행하였다.
51) 4월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192,379대)이며 친환경차 비중은 26.8%(72,711대)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52)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오포 등)의 한국 OLED 패널 사용 비중(%,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2021) 78 → (2022) 56 → (2023) 16
53) 4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단가는 0.3% 증가한 반면, 수출 중량은 1/4분기에 비해 13.7%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4) 오픈 AI가 공개한 GPT-4o 등의 경우 기존의 텍스트 데이터 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성능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고성능·고용량 반도체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55) D램 공급/수요 비율(%, 100이하는 공급부족, Gartner): (2024.3/4^{e}) 95.2 → (2024.4/4^{e}) 97.7 → (2025.1/4^{e}) 97.4 → (2025.2/4^{e}) 97.5
낸드 공급/수요 비율(%, 100이하는 공급부족, Gartner): (2024.3/4^{e}) 98.1 → (2024.4/4^{e}) 96.9 → (2025.1/4^{e}) 97.0 → (2025.2/4e) 97.7
56) 메모리반도체 가격 전망(전년동기대비, Trendforce)
D램 고정가격 등락률: (2024.1/4)+15.0%→(2/4)+11.8%→(3/4)+11.2%→(4/4)+5.0%
낸드 고정가격 등락률: (2024.1/4)+18.0%→(2/4)+6.4%→(3/4)+7.5%→(4/4)+0.7%
57)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OLE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 한국디스플레이협회): [OLED] (2019) 50.0 → (2021) 67.9 → (2023) 75.8 → (2024^{e}) 78.5
[LCD] (2019) 50.0 → (2021) 32.1 → (2023) 24.0 → (2024^{e}) 21.5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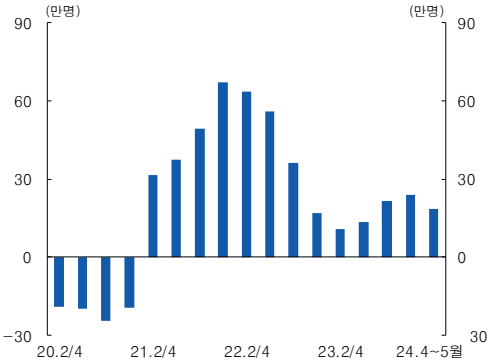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8.5만명 증가하여 전분기(24.0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인천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8]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서비스업[59]의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60]의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61]의 취업자 수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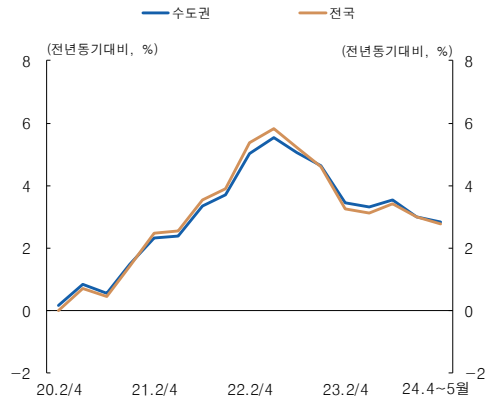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여 전분기(3.0%)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 전환[62]하였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및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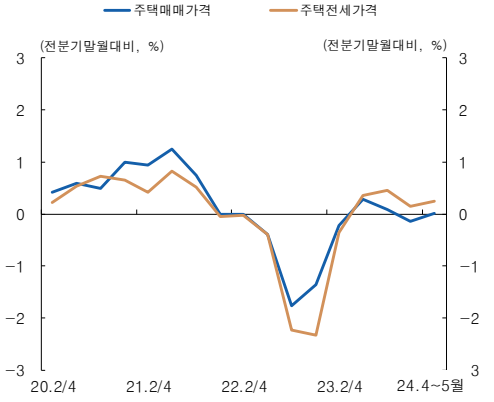
58) 4~5월 중 제조업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5만명 증가하여 전분기 3.2만명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59) 4~5월 중 서비스업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2.6만명 증가하여 전분기(19.6만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60) 4~5월 중 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20.5만명 증가하여 전분기(17.3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임시근로자의 취업자수는 17.8만명 증가하여 전분기(6.1만명)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61) 4~5월 중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2.0만명 감소하여 전분기 6.7만명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자영업자의 취업자수는 4.0만명 감소하여 전분기 4.6만명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62) 4~5월 중 석유류 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1%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분기(-1.6%) 하락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국제유가($/B, 두바이유 기준): 1월 78.9 → 2월 80.0 → 3월 84.2 → 4월 89.2)
63) 4~5월 중 전기·가스·수도 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4.1%로 전분기(+5.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 보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수준을 유지(+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미분양 물량 증가[64)] 등으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최근 대출금리 하락[65)] 등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주택매수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매매거래량이 소폭 증가[66)]한 데 기인한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24% 상승하여 전분기(0.15%)대비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전세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매물 감소[67)] 등에 주로 기인한다.[68)]

64) 4월 중 미분양주택수는 1.5만호로 전분기말(1월 1.0만 → 2월 1.2만 → 3월 1.2만) 대비 증가하였다.
65) 4월 중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3.93%로 2022.5월(3.9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66) 4월 중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7만건으로 전분기말(1월 1.8만 → 2월 1.9만 → 3월 2.3만) 대비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67) 5월 말 수도권 아파트 전세매물(월말기준)은 7.1만건으로 전분기말(1월 8.3 → 2월 8.1 → 3월 7.8) 대비 0.6만건 감소하였다.(부동산정보업체 아실)
68) 5월 중 수도권 주택의 전세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 월평균 기준)는 97.3을 기록하여 전분기(1월 91.8 → 2월 92.6 → 3월 93.6)에 이어 공급 우위 기조가 지속되었다.(한국부동산원)

2.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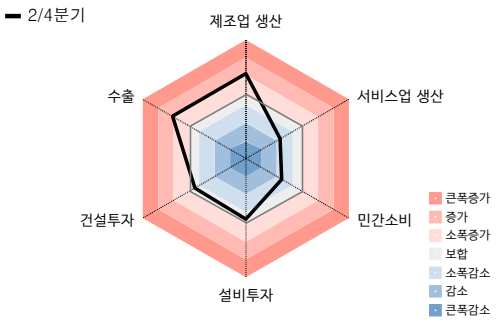
(1) 개 황

동남권 경기 보합

2024년 2/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수출은 증가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1/4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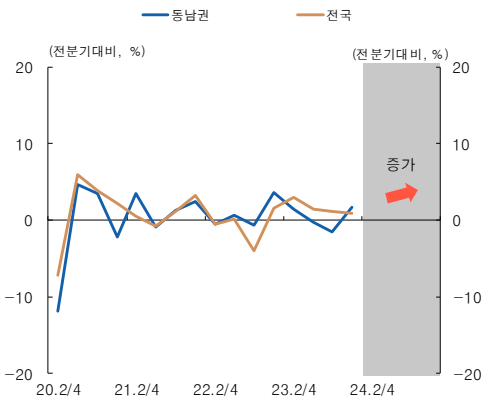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화학, 기계장비가 증가하였고 석유정제는 감소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 및 부품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조정[69]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으로의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확대[70]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조선은 기존의 수주잔량[71]을 토대로 고부가선박 등의 건조가 이어지면서 전분기보다 생산이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72] 정책에 따른

69)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4.28~5.13일 약 2주간 신형 팰리세이드 생산 준비를 위한 라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70) 4월 중 현대차, 한국GM, 르노코리아의 완성차 생산량은 각각 17.9만대, 4.9만대, 1.1만대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9.8%, 19.9%, 72.8% 증가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각각 22.0%, 15.1%, 153.9%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71) 6월 초 현재 수주잔량은 3,849만CGT로 2017~19년 월평균 수주잔량(2,005만CGT) 대비 1.9배 많은 수준이다.(Clarksons)
72)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활동과 내수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제조설비 등을 녹색 저탄소, 스마트화로 전환할 때 보조금과 투자세액환급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도 대미 수출 호조, 방산부문 설비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난방유 수요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전방산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신규수주 감소[73]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보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당분간 현재의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인력 수급난[74]은 지속적으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도 견조한 수출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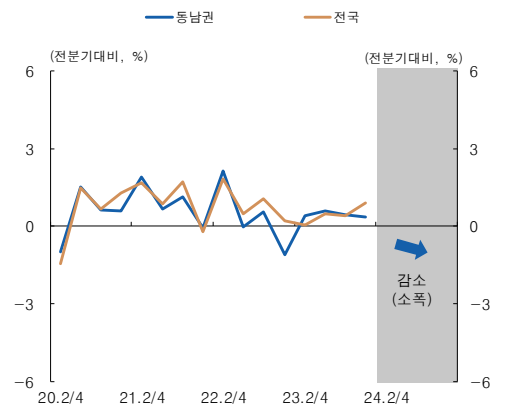
기계장비는 방산 및 원전부문 호조,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국내기업들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철강가격 하락압력 지속 등으로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은 수출입 물량 확대로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75] 및 육상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76]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주택거래가 전분기보다 둔화되면서[77]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내국인의 지역 방문이 줄면서[78] 전분기보다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은 재화 소비가 부진을 이어가며 대

73) 4~5월 동남권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량은 월평균 44.8만CGT로 1/4분기(월평균 117.0만CGT)에 비해 61.7% 감소하였다.(Clarksons)
74) 조선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75) 4월 중 수출입이 1/4분기(월평균) 대비 4.9% 늘어나며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9% 증가하였다.(부산항만공사)
76) 4~5월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 수는 1/4분기(월평균) 대비 7.9% 증가하였다.(한국도로공사)
77) 4월 중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11,877호로 1/4분기(월평균) 대비 4.6% 감소하였다.(한국부동산원)
78) 4월 중 동남권 방문객 수는 부산(-17.2%), 울산(-12.1%), 경남(-8.6%)에서 모두 줄어 1/4분기(월평균) 대비 12.8% 감소하였다.(한국관광공사)

형마트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79]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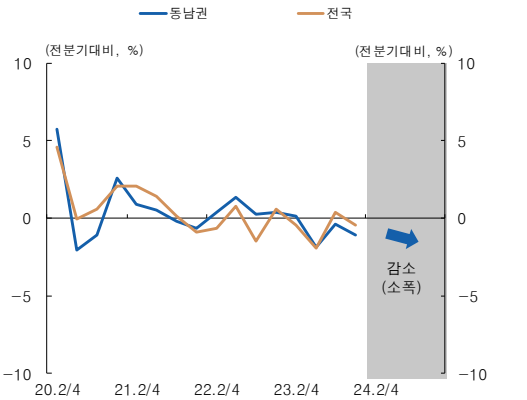
운수업은 글로벌 교역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부산항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번 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숙박·음식점업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국인 방문객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최근 미분양 주택[80]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도소매업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가계 소비가 둔화[81]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모두 전분기보다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고금리 영향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82] 감소하였으며, 준내구재도 레저용품 및 문화취미[83] 관련 지출이 줄며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음식료품 지출이 줄면서[84]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는 여행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의료 관련 지출도 줄면서[85]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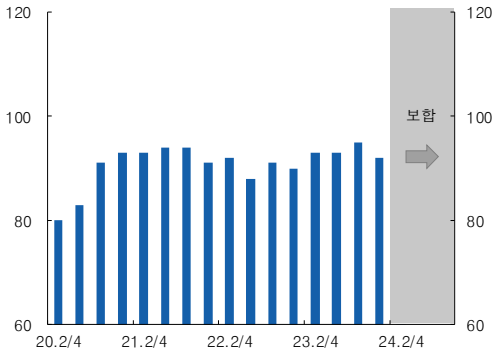
79) 4월 중 동남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불변)가 1/4분기(월평균) 대비 12.3%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6.5% 감소하였다.(통계청)
80) 4월 중 동남권 주택 미분양 물량은 1/4분기(월평균) 대비 28.3%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81) 4~5월 평균 소비지출전망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08.5로 1/4분기(월평균) 대비 소폭 상승(+0.8p)하였으나, 울산(–1.5p, 107.0 → 105.5)과 경남(–4.7p, 112.7 → 108.0)은 하락하였다.(한국은행)
82) 4~5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22,930대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다.
83) 4월 중 동남권의 준내구재 중 레저용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4분기(월평균) 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문화취미도 4.1% 감소하였다.
84) 4~5월 중 동남권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0.0% 상승하였으며, 4월 중 동남권 음료식품 카드사용액은 1/4분기(월평균) 대비 6.4% 감소하였다.
85) 4월 중 동남권의 숙박(-13.5%), 레저업소(-1.9%) 등의 카드사용액이 모두 1/4분기(월평균) 대비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관 카드사용액(전분기 월평균 대비)도 23.4/4분기 4.5% → 24.1/4분기 1.1% → 4월 –4.9%를 기록하여 감소로 전환된 모습이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소비심리 개선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보합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는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정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 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기계장비[86)]는 항공부문 생산설비 증설, 자동차[87)]는 신모델 개발에 따른 생산라인 변경 등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88)]은 일부 신사업 관련 공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 철강·비철금속은 건설업 등 전방산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 분기의 부진이 이어졌다. 석유정제는 신규 설비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89)]의 경우 양호한 수주를 바탕으로 신규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90)], 전기장비[91)] 및 기계장비[92)]도 신사업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석유정제·석유화학의 경우 중동리스크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금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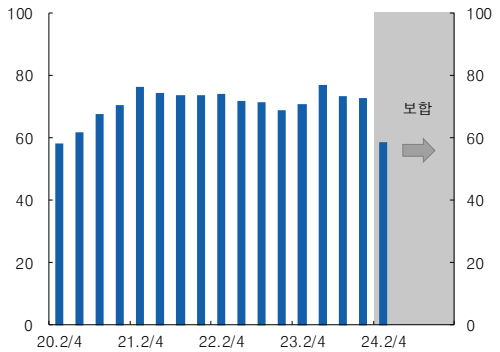
건설투자 보합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누증[93)] 등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

86)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90억원 규모의 항공엔진공장 증설공사를 착공(4월)하였다.
87) 르노코리아는 첨단하이브리드 모델(오로라1) 생산을 위해 부산공장 생산설비 개조공사(6~7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88)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은 2.8천억원 규모의 NB-라텍스 설비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5월 어프로티움은 1.2천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액화 및 저장 공장을 준공하였다.
89)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및 친환경 연료기술 개발과 해상풍력발전 설비 마련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90) 현대차는 전기차 진단 및 관리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울산하이테크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신모델 생산을 위한 1.2천억 규모의 설비교체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91) 삼성 SDI는 상반기 중 울산 공장 내에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시설 건설 및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3공구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92) 한화오션은 2024년 중 3.8천억원 규모의 최적 생산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3월까지 612억원 규모의 항공·선박용 배터리 셀 제조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93) 4월 말 동남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3,058호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6.9%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거용 건물 건설이 감소하였으나 제조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94]이 늘어나면서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95]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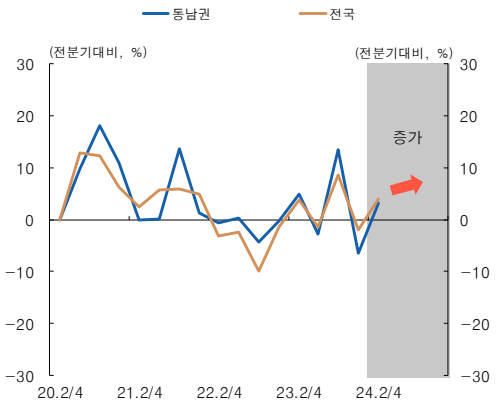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증가 및 고금리 지속 등으로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감소[96] 등을 감안하면 금분기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증가[97]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 석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철강금속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박은 그간 수주물량의 인도가 상당부분 진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98]하였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난방유 수요감소 등으로 감소 전환[99]하였다.

94) 4월 중 동남권의 전체 착공면적은 83만m2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공업용이 85.9% 증가한 반면 주거용, 상업용은 각각 23.2%, 3.9%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2.3% 증가, 공공은 18.3%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95) 2024년 4~5월 중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 규모(월평균)는 5,127억원으로 전분기(8,785억원) 대비 41.6% 감소하였다.(지방재정365)
96) 4월 중 동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2,197억원으로 전분기(월평균) 2,718억원에 비해 19.2%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97) 4~5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5.6억달러)은 전분기(5.5억달러)대비 3.2%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98) 최근 선박수출(MTI 7461, 억달러)은 2023년 4/4분기 0.91 → 2024년 1/4분기 0.66 → 2024년 4~5월 0.58로 감소세를 보이나, 2021-2022년 평균 수출액(0.50)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9) 4~5월 중 두바이유(86.6달러/bbl)가 전분기(81.6달러/bbl)대비 6.1% 상승한 가운데 동남권 석유제품(MTI 133) 수출중량은 전분기 대비 6.4%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부품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SUV,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북미지역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100]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은 지난 분기 주춤하였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상당 부분 회복되며 증가[101]하였다. 기계는 주요 수요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면서[102], 석유화학제품은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중국 등의 수요 확대[103]로 각각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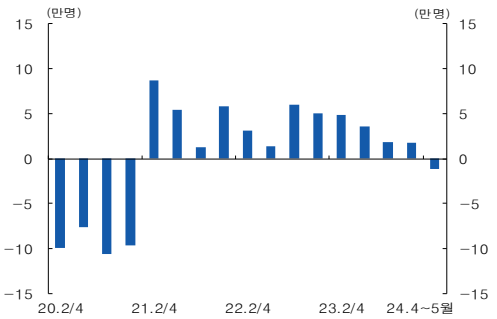
기계 및 석유화학제품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SUV 및 친환경 차량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부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은 글로벌 수요회복 등 경기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 및 비OPEC+ 원유 증산 등 가격변동 요인[104]이 혼재하면서 2/4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선박은 2021년 수주물량의 상당 부분이 기인도[105]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4) 고 용

취업자수 감소 전환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2만명 감소하여 2021년 2/4분기 이후 3년만에 감소 전환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확대었으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4.0만명 → -5.0만명) 등 비임금근로자 감소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었고, 임시근로자(+3.4만명 → +1.4만명)와 상용근로자(+6.2만명 → +4.5만명) 등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한 반면, 부산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남은 감소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감[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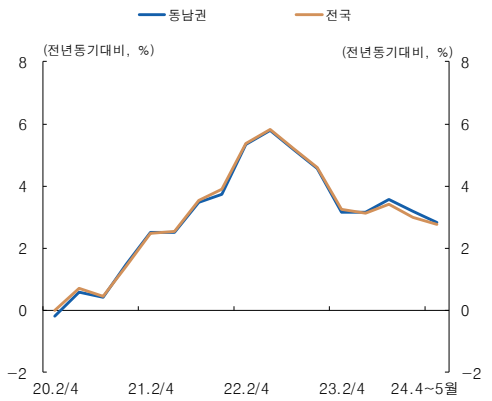
100) 4~5월 중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MTI 741, 742)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4.2% 증가(자동차 +46.8%, 자동차부품 -34.3%)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101) 4~5월 중 동남권 철강금속제품(MTI 6) 수출은 중국(16.6%)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2.5% 증가하였다.
102) 4~5월 중 동남권 기계(수송기계 제외) 수출액은 기타기계류(MTI 79)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미국 수출은 전분기대비 8.8% 증가하였다.
103) 4~5월 동남권 석유화학제품(MTI 21) 수출은 중국(27.2%) 및 미국(55.4%)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5.0% 증가하였다.
104)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bbl, 일평균)는 2024년 3월 84.7 → 2024년 4월 89.4 → 2024년 5월 83.7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105) 2021년 중 동남권에 조선소가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물량(CGT 기준)은 2017-2020년 평균 수주물량의 2.5배 수준으로 2024년 5월말 기준 동 물량의 약 57.1%가 기인도되었으며 3/4분기 중에는 11.1%가 인도될 예정이다.(Clarksons)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8%로 전분기(3.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공업제품 가격(-5.2%→2.1%)이 석유류[106]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2.8%→2.2%) 오름폭이 줄고 농축수산물 가격(10.8%→10.0%) 상승세도 다소 완화된 데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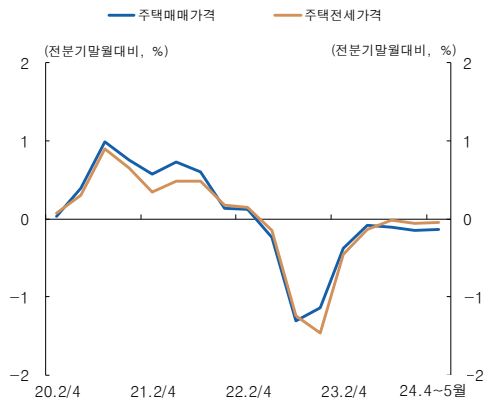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4~5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전분기말월대비 0.13% 및 0.04% 하락하면서 1/4분기(-0.17%, -0.07%)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세가격도 상승하였으나, 경남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 및 전세 수급지수도 4~5월 중 86.2와 91.5로 전분기(85.0, 89.6)보다 높아져 매도우위 흐름이 약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말 기준. 단, 표본재설계 이전인 2021.6월까지는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106)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 중 2.5%에서 4~5월 중 9.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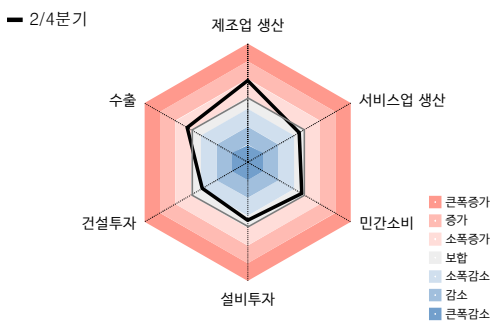
(1) 개 황

충청권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2/4분기 중 충청권 경기는 1/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하였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1/4분기보다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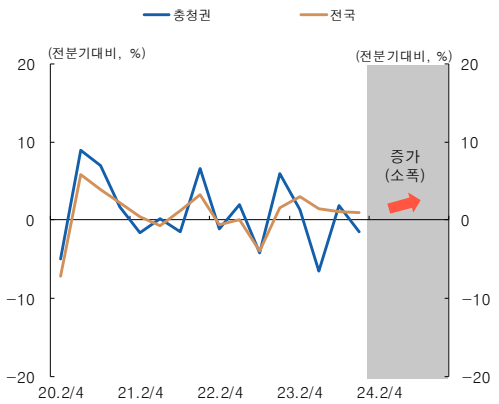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이 소폭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 철강, 전기장비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글로벌 AI 서비스 확산[107]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설비공사[108] 종료에 따른 생산 정상화[109] 등으로 소폭 늘어났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확대[110]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107) 2024년 중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71.3억달러로 전년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다.(Gartner)
108) 현대자동차는 신규 전기차(아이오닉9) 생산을 위한 설비공사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아산공장의 일부 가동을 중단하였다.(현대자동차 공시)
109) 올해 1/4분기 중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월평균 생산(쏘나타, 그랜저, 아이오닉6 등)은 12,338대로 작년 수준(23,529대)을 하회하였으나 4월에는 25,710대로 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110)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렉라자)는 올해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기 시작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수익성 악화[111]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국내 전방산업의 업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112] 등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전기장비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113], 배터리 업체 간 경쟁 심화[114]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115]에도 불구하고 신규 IT제품 출시[116]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도체는 보유재고가 소진[117]되는 가운데 업황 개선이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의 OLED 탑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118]하면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 및 부품은 고부가가치 신차 출시[119]에 따라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의약품은 신제품[120]을 중심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장비는 신규 제품 출시[121]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의 업황이 둔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수요가 일부 회복[122]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 부진[123]이 이어지겠으나 일부 대기업의 설비보수를 위한 생산 일정조정[124] 등으로 전분기와 유사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업 및 부동산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하면서 1/4분기 중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69.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11) 에틸렌(생산제품)-나프타(원재료) 스프레드(달러/톤)는 1/4분기 중 194달러(월평균 기준)에서 4~5월 173달러로 하락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112) 4월 중 중국산 철강재 수입물량은 91만 7천톤(전체 수입물량의 65%)으로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하였다.(한국철강협회)

113) 금년 중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 전망치(17%)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EV Volumes)

114)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4년 1/4분기 중 23.5%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하였다.(SNE리서치)

115)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글로벌 스마트폰 탑재 OLED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4분기 41.7%에서 2024년 2/4분기 48.7%로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동 기간 중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51.6%에서 44.4%로 하락할 전망이다.(Omdia)

116) 애플이 2024년 5월에 출시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아이패드 제품 중 최초로 OLED 패널을 채택하였다. 시장조사기관 DSC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신형 아이패드 프로용 OLED 패널의 35%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17) 전국 반도체 제조업 재고지수(계절조정)는 작년 8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4년 4월 중에는 1/4분기 월평균 대비 3.0% 하락하였다.(통계청)

118) 2024년 중 IT 제품별 OLED 패널 시장 성장률은 스마트폰 18.3%, 노트북 29.9%, 태블릿PC 221.1%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Omdia)

119)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새로운 대형 SUV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9의 양산을 3/4분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120)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J&J)와 협약을 맺고 폐암치료제(렉라자)의 美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3/4분기 중 승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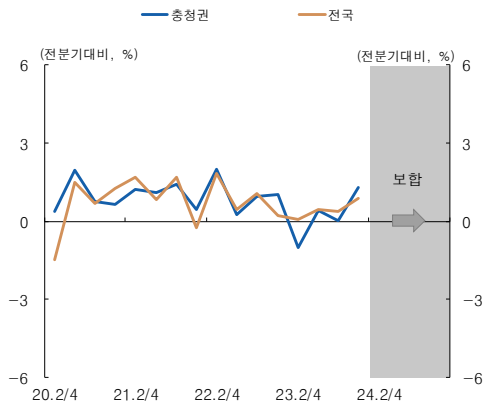
121) LG에너지솔루션은 3/4분기부터 충북 오창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시리즈)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122) 중국 정부가 금년 중 노후 자동차, 가전, 가구 등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2024년 국내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1.1%, 하반기 중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124)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9월 이후 설비보수를 계획하고 있어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조기생산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운수업은 여객 수송[125)] 및 해운 물동량[126)]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매매거래량이 다소 회복되면서[127)]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의 판매가 부진[128)]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 수준, 지역 숙박객 감소[129)]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수업은 여객 수송 증가세 지속 및 상품교역 개선[130)]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점진적인 심리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131)]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수출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체류형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 여름철 기상 여건 악화 가능성[132)]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전망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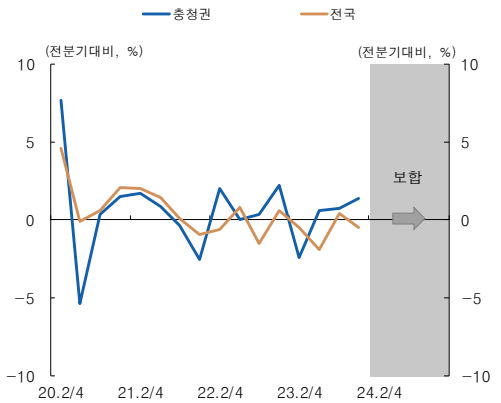
125) 4월 중 충청권 철도 이용인원(9.1만명)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7.8%로 1/4분기 증가율(7.5%)보다 0.3%p 상승하였다.(코레일)
126) 4월 중 충청권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화물 수송량(1,962만톤)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0.0%로 1/4분기 증가율(0.1%)보다 9.9%p 상승하였다.(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127) 4월 중 충청권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7,814건으로 1/4분기 월평균(6,533건)보다 19.6%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128) 충청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지수, 전년동기대비)는 4월 중 감소 전환((1월 −12.9%→2월 6.6%→3월 3.3%→4월 −9.7%) 하였다.(통계청)
129) 4월 중 충청지역 숙박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관광 데이터랩)
130) 세계교역 신장률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상반기 중 2.1%에서 하반기 중 4.1%로 개선될 전망이다.(한국은행)
131) 대전세종충남 및 충북 지역의 주택가격전망은 4~5월 중 상승(각각 1/4분기 95→4~5월 103 및 99→104)하였다.(한국은행)
132) 여름철 기후 예측에 따르면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며 강수량은 7~8월 중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로 전망되었다.(기상청)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형태별로 살펴보면 비내구재는 연료 소비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내구재는 자동차 판매 호조[133)]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및 가구 판매가 부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계절형 의류 소비 개선과 주방용품 소비 축소 등 품목별 소비가 엇갈리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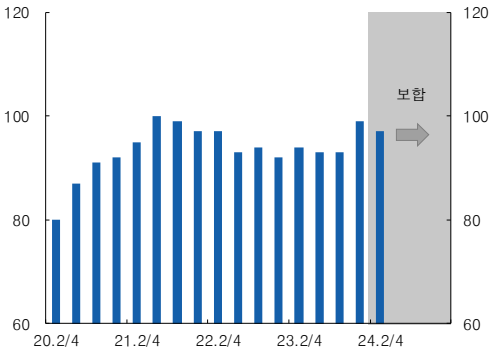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숙박, 여행 등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화 및 서비스 소비 모두 물가 오름세 둔화[134)], 주력산업 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보합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철강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전기장비 등은 전분기와 비슷하였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AI 반도체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135)]가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136)]로 소폭 늘어났다.

133) 4월 중 충청권 자동차 등록대수는 13,068대로 전분기(월평균 12,814대) 및 전년동월(12,307대)에 비해 증가하였다.
134) 5월 중 충청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은 전월대비 둔화(대전 3.1→2.6, 세종 2.9→2.7, 충남 2.5→2.4, 충북 2.7%→2.5%)되는 모습이다.(통계청)
135) SK하이닉스는 급증하는 AI 메모리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D램 생산기지로 청주 반도체 공장(M15X)에 2025년말까지 5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 2024년 1/4분기 실적발표)

자동차 및 부품은 신형 친환경차 생산 관련 투자가 종료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IT제품에 탑재될 차세대 OLED 생산시설 구축이 진행되면서[137]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면서[138]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기장비는 전방 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생산시설 신·증설[139]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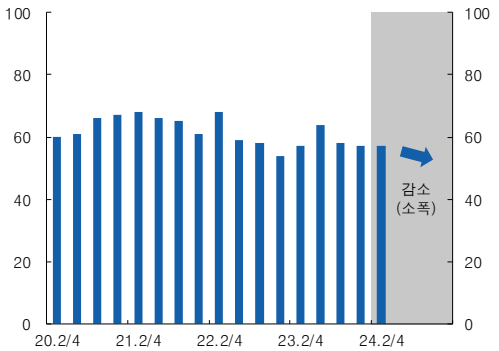
반도체의 경우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140]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제품 관련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설비 증설 투자가 본격화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장비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141]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연구개발 및 자동화 관련 투자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생산설비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자금조달 여건 악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착공실적 부진이 지속[142]되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143]로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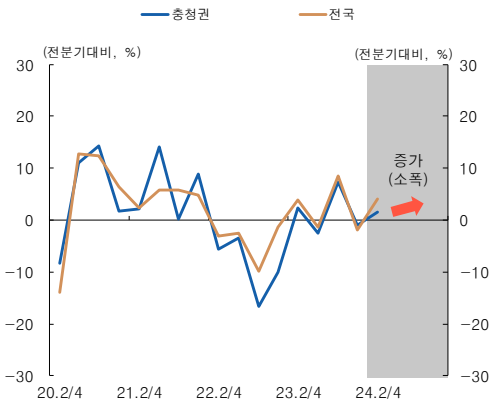
136)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고부가가치 열처리 후판 생산능력을 기존 연 15만톤에서 30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1후판공장에 열처리로 설비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4/4분기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137) 삼성디스플레이는 태블릿PC 및 노트북 등 IT 제품에 탑재될 8.6세대 OLED 생산설비 투자(4.1조원 규모)를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138) LG화학은 당진 초임계 열분해공장 및 에어로젤 공장(3,100억원 규모), 청주 RO필터 생산설비(1,200억원 규모) 등의 설비 신·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139)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2/4분기 현재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 마더라인(신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험생산 및 양산 검증을 모두 담당하는 공장) 구축 등 총 4조 6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다.
140) 삼성전자는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제품(HBM)의 생산능력을 천안공장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최소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141) SK온은 2025년까지 1조 7,535억원 규모의 서산공장 증설 투자를 진행하여 장기적인 전기차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142) 4월 충청지역 착공면적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4.8%로 1/4분기(-24.9%)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해당 기간 중 주거용은 –19.4%에서 –25.1%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주거용은 –27.1%에서 –24.8%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국토교통부)
143) 충청권 지자체의 4~5월 중 SOC 예산 집행 규모(월평균)는 1/4분기에 비해 감소(-20.0%)하였다.(지방재정365)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미분양주택[144] 및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145]이 악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올해 정부 SOC 예산 증액[146]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 개선이 지연[147]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수출 소폭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 및 전기장비는 소폭 감소하였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세[148]가 이어지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지역 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늘어났다.

철강은 주요 수요처인 북미[149] 수출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전기장비는 제품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부진 등에 따라 소폭 감소[150]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OLED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급 확대에 따라 단가 하락이 지속[151]되면서 보합

144) 4월 말 충청권 미분양주택 수(10,798호)는 충남,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 말(9,399호)에 비해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145) 충청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4분기 중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대전 16.4→17.0, 세종 23.9→24.8, 충남 14.4→14.6 및 충북 18.6→18.9)
146) 정부의 2024년 SOC 예산은 작년(25.0조원) 대비 5.6% 증가한 26.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147) 4월 중 충청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1,74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0%, 전분기 월평균 대비 47.0% 감소하였다.(통계청)
148) 주요 메모리반도체인 DDR4(8Gb) 및 DDR5(16Gb)의 계약가격은 4~5월 중 1/4분기 대비 각각 16.7% 및 13.4% 상승하였다.(DRAMeXchange)
149) 충청지역 철강제품(MTI61)의 북미 수출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68.8% 증가하였으나 4~5월 중에는 18.6%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0) 충청지역의 이차전지(HS 850760) 수출은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45.1% 감소한 데 이어 4~5월 중 49.1%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1) 중소형 OLED 패널 가격은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8.6%, 전기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Omdia)

수준을 나타내었다. 석유화학은 제품 가격 하락[152]에도 불구하고 북미 수출 호조[153]로 전분기 수준을 나타내었다.

향후 수출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154] 및 IT 업황 개선 흐름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155],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경기에 따른 TV 교체 수요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156]와 신차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주요국 관세 인상[157]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지속[158]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기장비는 전방산업의 업황 부진[159]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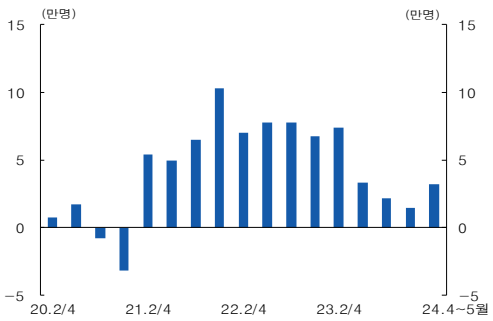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160]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강화[161]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2만명 늘어나 1/4분기(+1.5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서비스업이 증가 전환되었으며 건설업의 증가폭은 축소, 제조업은 감소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증가 전환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충북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세종은 축소되었고 대전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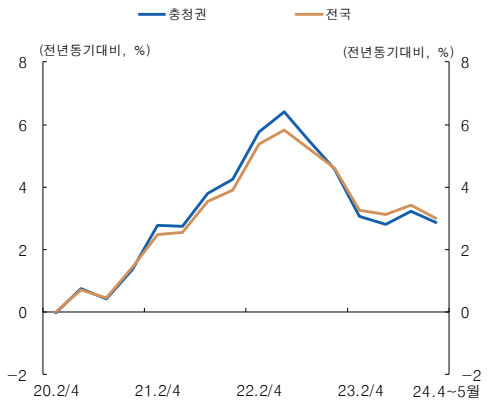
152) 4~5월 중 에틸렌 가격(달러/톤)은 월평균 869달러로 1/4분기 892달러보다 하락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153) 충청지역 석유화학제품(MTI21)의 북미 수출은 4~5월 중 전년동기대비 69.5%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4) 올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기록하면서 작년(13%)에 비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Omdia)
155)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모델인 갤럭시 Z폴드·플립6와 애플의 신형 아이폰16이 3/4분기 중 출시 예정이다.
156) 현대자동차는 올해 1/4분기 중 북미,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다.(현대자동차 2024년 1/4분기 실적 발표)
157) 최근 미국, 칠레, 브라질 등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가운데 4월 중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7.2% 각각 감소하였다.(세계철강협회)
158) 중국은 부동산개발투자가 1~4월 중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
159)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가 올해 전기차 공장 직원 1,400명을 전환 배치 및 해고한 데 이어 테슬라도 1/4분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0) 중국은 2020년에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기초유분의 자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였고 2025년에는 일부 중간원료 및 합성수지의 자급률도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수출입은행)
161) 롯데케미칼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가치·신성장 제품으로 생산 및 설비를 전환할 계획이다.(롯데케미칼 2024년 1/4분기 실적발표)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여 1/4분기(3.0%)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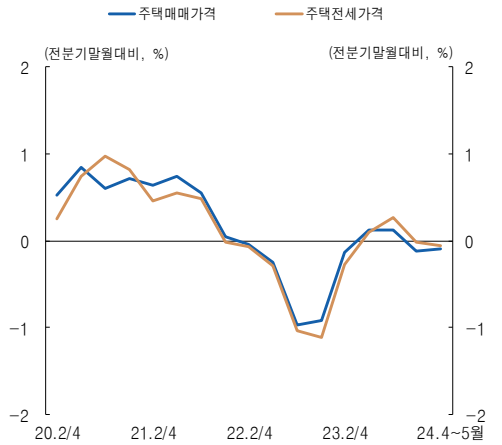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2) 2021.1월부터 세종 포함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 하락폭 축소 및 전세 가격 하락폭 확대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9% 하락하며 1/4분기(-0.12%)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및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각각 -0.05%→-0.10% 및 -0.77%→-0.84%)되었으며 충북은 증가 전환(-0.04%→0.01%), 충남은 감소폭이 축소(-0.14%→-0.06%)되었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6% 하락하며 1/4분기(-0.0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0.08%→0.01%)은 증가폭이 축소, 대전(0.18%→-0.09%)은 하락 전환되었고 세종(-0.71%→-0.74%)은 하락폭이 확대, 충남(-0.1%→-0.01%)은 다소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4.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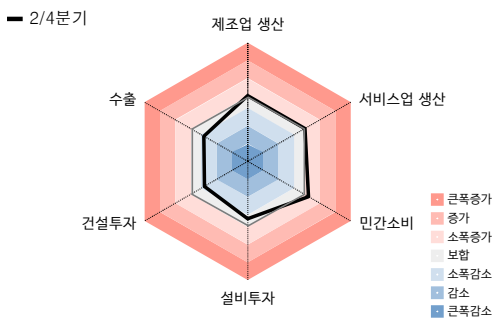
(1) 개 황

호남권 경기 소폭 개선

2/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1/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1/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4~5월 중 소비자물가는 1/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1/4분기 대비 상승 전환하였고 전세가격은 1/4분기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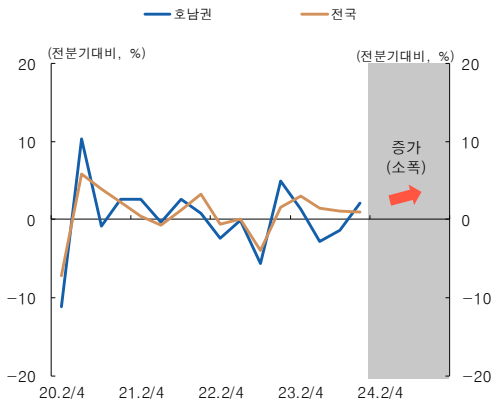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조선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석유정제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는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조선은 신조선가가 상승세[162]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 수주한 고가 선박의 건조량이 확대[163]되면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SUV 수요[164]가 대내외적으로 견조하게 지속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석유정제는 유가 상승에도 정제마진이 하락[165]하였으나, 1/4분기 정비작업[166]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하였다.

162) 조선사들이 높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신조선가 상승세(20년 127.3 → 21년 141.1 → 22년 159.6 → 23년 171.1 → 24.1~5월 183.2, Clarkson社 기간 중 평균 신조선가지수)가 이어지고 있다.
163) 조선은 선박 수주 후 설계를 거쳐 실적이 발생하는 건조 및 인도까지 2년의 시차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 2022년 이후 수주한 고가 선박의 건조량이 확대되고 있다(호남권 조선사 수주량, 21년 2.6백만CGT → 22년 3.2백만CGT).
164) 기아자동차의 4월 중 SUV(스포티지·셀토스·쏘울, 광주공장 생산 모델) 내수판매와 수출은 각각 1.2만대와 2.9만대로 1/4분기(월평균 각각 1.1만대, 2.8만대)대비 각각 13.3%, 3.9%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둔화[167]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업황 부진[168]이 지속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호조를 보였으나 건설업이 부진[169]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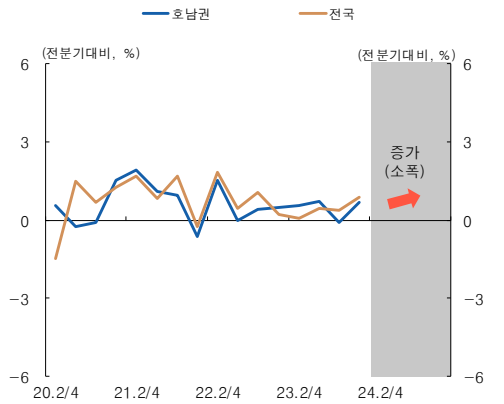
조선은 양호한 수주 상황[170]이 지속되며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견조한 국내외 SUV 수요를 바탕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등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의 양호한 업황에도 건설 등이 부진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불확실성[171]에 영향을 받으며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은 수익성이 낮은 범용제품 생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고부가·친환경 제품군 투자를 추진하며 당분간 낮은 생산을 유지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및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전국은 GDP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업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172]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173]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174]에도 불구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175], 전주국제영화제 및 대규모 지역축

165) 국제유가 상승(두바이유 기준, 달러/bbl, 23.12월 77.2 → 24.1/4분기 81.5 → 4~5월 86.4, 기간 중 평균) 등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복합정제마진(24.1/4분기 11.1달러/배럴 → 4~5월 4.8달러/배럴, 기간 중 평균)이 하락하였다.
166) GS칼텍스는 3월 중 단위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시설 해체, 장비 점검 등을 수행하는 정비작업(Turnaround, TA)을 실시하였다.
167)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4.1분기 297백만대에서 2분기 278백만대로 소폭 감소한 후 3분기 311백만대, 4분기 333백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Counterpoint社).
168) 24.4~5월 중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와 산출물인 에틸렌의 가격 차이(나프타 - 에틸렌, 달러/톤)가 173달러/톤을 기록하여 손익분기점(300달러/톤)을 큰 폭 하회하였다.
169) 24.4~5월 중 전국 자동차·조선 업황실적 BSI가 각각 88.0과 101.5를 기록하였으나, 전국 건설업 업황실적 BSI는 51.0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하는 등 전방산업 업황이 엇갈리는 상황이다(24.1/4분기 평균, 자동차 83.0, 조선 88.0, 건설 53.3).
170) HD현대삼호는 24.5월말 기준 약 35억달러의 선박 수주를 기록하여 연간 수주 목표(32억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다.
171)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상방요인과 非OPEC+ 증산 등 하방요인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72) 2/4분기 중 호남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총 7.7천호로, 1/4분기(7.6천호)대비 1.1% 증가하였다.
173) 4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19.2천호로, 1/4분기(18.5천호, 월평균)대비 3.4% 증가하였다.
174) 24.4~5월 중 호남권 외식물가지수는 120.1로 상승세(22년 110.5 → 23년 116.6 → 24.1/4분기 119.1)를 유지하였다.

제 개최[176] 등의 영향으로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177]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178]하였으나 수상운송이 늘어나며[179]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더디게 회복[180]되면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고물가 기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수업도 수출 물동량 회복이 지속되고 여행 수요도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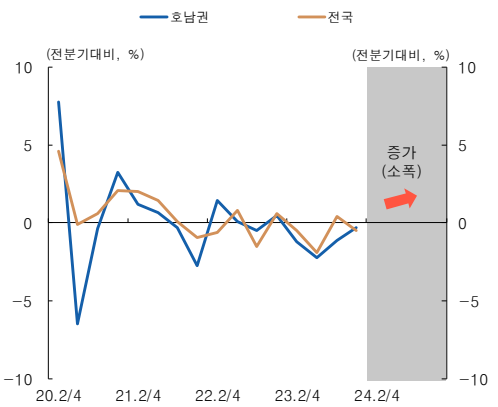
부동산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악화[181]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자동차 소비[182]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183] 및 가전[184]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185]하였다. 준내구재

175) 순천만국가정원은 6개월여 간의 정비를 마치고 4.1일 재개장하였으며, 4월 한 달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176) 2/4분기 중 전주 국제영화제(5.1-10일, 6.7만명(전년대비 +0.1만명)), 담양 대나무축제(5.11-15일, 65만명(전년대비 +2만명)), 곡성 세계장미축제(5.17-26일, 24만명(전년대비 +1만명)) 등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177) 4~5월 중 호남권 월평균 방문자 수(외지인 기준)는 2,457만명으로 1/4분기(2,422만명, 월평균)대비 1.5% 증가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178) 4~5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월평균 운항 편수는 1,950편으로 1/4분기(1,916편, 월평균)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여객 수는 28.5만명으로 1/4분기(27.1만명, 월평균)대비 5.1% 증가하였다. 운송화물은 1.4천톤으로 1/4분기(1.6천톤, 월평균)대비 8.8% 감소하였다.
179) 4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17.5만TEU으로 1/4분기(15.9만TEU, 월평균)대비 9.8% 증가하였다.
180) 4~5월 중 광주전남,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92.8, 94.0로 1/4분기 평균 대비 광주전남은 0.4p, 전북은 1.4p 하락하였다.
181) 4~5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는 92.5로 1/4분기(91.5, 월평균) 수준을 유지하였다.
182) 4~5월 중 월평균 호남권 신규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대로 1/4분기(1.3만대, 월평균)대비 5.2% 증가하였다.
183) 4~5월 중 호남권 가구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하여 1/4분기(6.9%)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는 의복[186] 및 레저용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연료[187]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명품 등 고가 제품과 의복 소비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대형마트 매출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오름세[188]를 이어가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189]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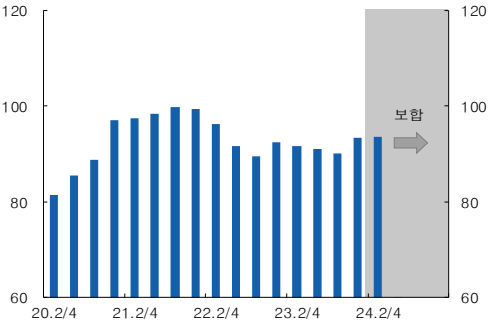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이용이 감소[190]하였으나, 의료소비가 증가하고[191] 여행 관련 지출도 늘어나면서[192]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면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보합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으로 노후화 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 위주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기존 투자 계획[193]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석유정제[194]와 철강[195]은 기존 계획에

184) 4~5월 중 호남권 가전제품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3.0% 감소하여 1/4분기(-12.3%)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85) 4~5월 중 호남권 내구재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하여 1/4분기(-21.9%)에 이어 감소 흐름이 지속되었다.
186) 4~5월 중 호남권 의복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여 1/4분기(-8.3%)에 이어 감소 흐름이 지속되었다.
187) 비내구재 중 연료판매의 비중은 약 80%로, 4~5월 중 호남권 연료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여 1/4분기(-3.1%)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188) 4~5월 중 호남권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9.6%으로 1/4분기 10.4%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89) 4월 중 호남권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1/4분기 평균 대비 각각 2.4%, 11.7% 감소하였다.
190) 4~5월 중 호남권 레저업소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여 1/4분기(0.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191) 4~5월 중 호남권 의료기관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하여 1/4분기(12.1%)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92) 4~5월 중 호남권 여행 관련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여 1/4분기(9.9%)에 이어 늘어났다.
193) LG화학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재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40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2만톤 규모의 ABS 생산공장을 건설중이다. 롯데지에스화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500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 중 C4 유분공장을 준공하였고, 2024년 중 페놀/BPA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따라 탄소중립·환경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장비[196]도 이차전지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라인 신설[197]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정제와 철강은 친환경 설비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장비도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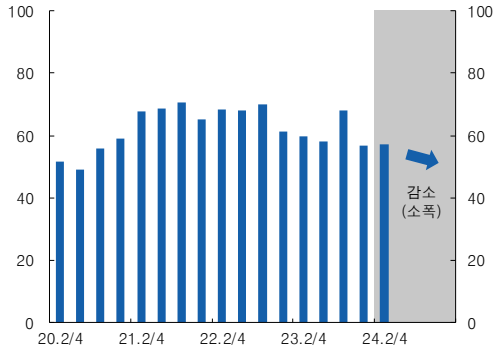
여타 업종에서는 업황 부진 및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당분간 유지·보수 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줄어들면서 1/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은 SOC 예산집행액[198]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착공면적은 증가[199]하였으나 미분양 주택이 큰 폭 늘어나면서[200]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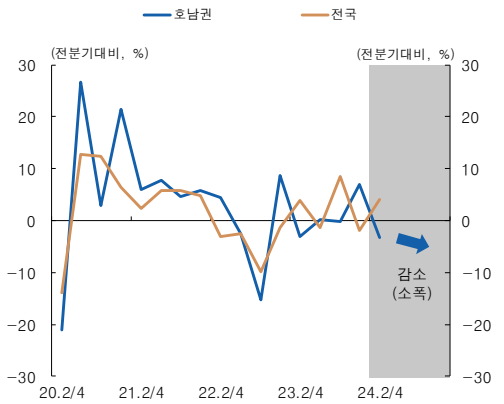
공공부문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늘어나면서[201]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한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이 지속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194)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195)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6,000억원을 투자하여 250만톤 규모의 탄소저감 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24.2월 착공하였다(25년 준공 예정).
196)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은 6,800억원을 투자하여 5만여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24.2월 착공하였다(25년 준공 예정).
197)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2024년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25년 중 양산 목표).
198) 4~5월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월평균)은 5,50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다.
199) 4월 중 호남권 착공면적은 약 75.1만m^2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하였다.
200) 4월 중 호남권의 미분양 주택은 8,625호로 1/4분기말(8,516호)대비 1.3% 증가하였다. 특히 4월 중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1,721호로 1/4분기말(1,286호)대비 33.8% 증가하였다.
201) 4월 중 호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4,51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5% 증가하였다.

수출 소폭 감소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1/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선이 큰 폭 감소하였고 석유정제는 소폭 감소하였다. 여타 업종은 1/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화학은 주요 시장의 수요회복[202]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기저효과[203]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조선은 업체 계약 일정에 따라 선박 인도가 줄면서[204] 큰 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는 SUV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철강은 더딘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205]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조선이 큰 폭 증가하고, 자동차와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여 2/4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인도예정물량이 늘면서[206]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SUV 판매호조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등 여타 업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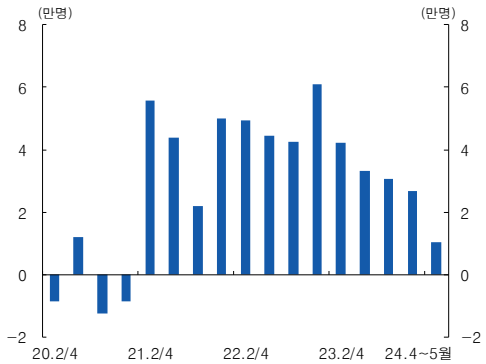
202) 4~5월 중 호남권 석유화학 수출(기간중 월평균)은 북미(+45.5%), 아시아(+9.1%) 등에서 1/4분기 월평균 대비 증가하였다.
203) 호남권 반도체 수출은 스마트폰 관련 수주가 줄면서 지난 2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전분기대비 증감률, 23.4분기 -36.5% → 24.1분기 -5.2%).
204) 2/4분기 중 호남권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36.8만CGT로 1/4분기(52.1만CGT)대비 29.4% 감소할 전망이다.
205) 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2022년 17.8억톤에서 2023년 17.6억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2024년 중 철강 수요가 17.9억톤을 기록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6) 3/4분기 중 호남권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47.8만CGT로 2/4분기(36.8만CGT)대비 29.8% 증가할 예정이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0만명 증가하여 1/4분기(2.7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207]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208]의 증가폭은 축소되었고, 건설업[209]은 감소 전환하였다. 농림어업[210]의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광주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전남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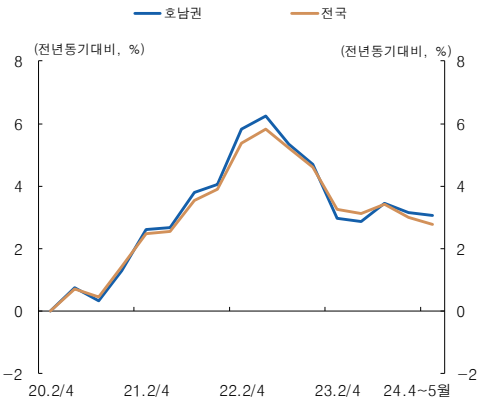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둔화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여 1/4분기(3.2%) 보다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상품 물가는 석유류 가격[211]이 국제유가 반영[212]으로 상승 전환하였고 농축수산물[213] 가격이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을 유지하였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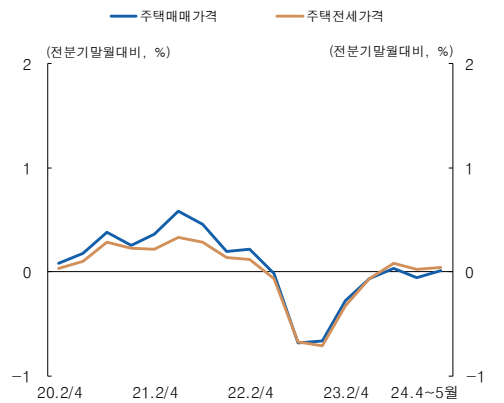
207) 4~5월 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8만명 증가하여 1/4분기(2.6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208) 4~5월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9만명 증가하여 1/4분기(1.6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209) 4~5월 중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5만명 감소하여 1/4분기(0.8만명) 증가에서 감소 전환하였다.
210) 4~5월 중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감소하여 1/4분기(-2.3만명)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211) 4~5월 중 석유류는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하여 1/4분기(-2.1%)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212) 4~5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8.8% 상승하여 1/4분기(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13) 4~5월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동기대비 9.6% 상승하여 1/4분기(10.4%)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환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1% 상승하여 1/4분기(-0.05%)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이 상승 전환하였고 광주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4~5월 중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5% 상승하여 1/4분기(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상승폭을 유지하였고 전남은 상승 전환하였으며 광주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5.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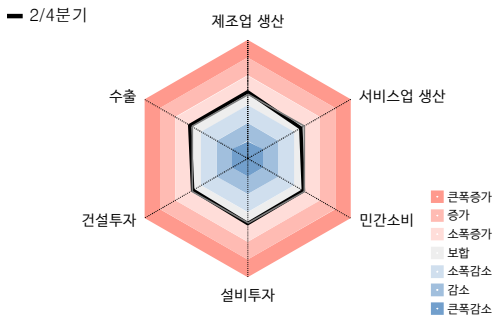
(1) 개 황

대경권 경기 보합

2024년 2/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전분기대비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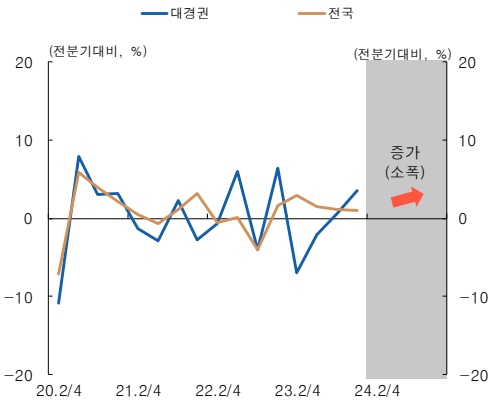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휴대폰 및 부품이 소폭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및 섬유는 소폭 감소, 철강은 감소하였으며 기계장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부품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국내 완성차의 수출 개선[214]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은 갤럭시 신제품의 높은 출하량[215]과 아이폰 관련 부품 생산이 이어지며 소폭 증가하였다.

214) 2024년 4~5월 중 월평균 자동차 생산은 전분기보다 12.3% 증가(34.2만대→38.4만대)하였으며 수출은 14.5% 증가(23.0만대→26.3만대), 내수 판매는 8.6% 증가(10.8만대→11.7만대)하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15) 올해 1월에 출시한 갤럭시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삼성전자는 1분기 6,040만대의 글로벌 출하량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2.5억만대의 높은 출하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IT용 패널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섬유는 대중국 및 튀르키에 수출 수요가 정체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선박 등 전방산업의 생산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생산사업장 내 고로 개수[216]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국내외 설비투자 축소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및 부품은 하반기 온디바이스 AI 탑재 아이폰 및 갤럭시 폴더블 등 신제품 출시[2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등 고부가가치 패널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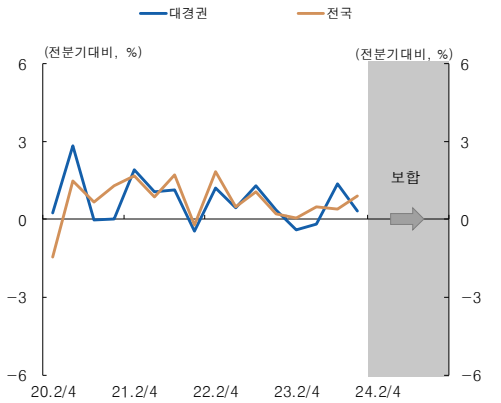
자동차부품은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 지속, 건설투자 부진 및 지역 생산사업장의 설비 정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주요국 수요 회복이 제약되어 2/4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비도 국내외 투자수요 부진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소폭 증가하였고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운수업은 보합 수준이었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강세로 인한 대형마트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량[218]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외식 수요가 개선되고 외국인 고객이 증가하였으나 내국인 및 단체행사 수요가 축소[219]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216) 고로 개수는 용광로 성능 개선을 위해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신예화하는 작업으로, 포스코는 올해 2월부터 일부 고로 개수를 실시하고 있다.
217) 갤럭시 폴더블 신제품 출시가 7월 중순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아이폰16 신제품 역시 3분기중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8) 대구경북지역 주택거래량은 2024년 4월 8,343건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월평균 주택거래량: 2023.4/4분기 7,279건 → 2024.1/4분기 7,878건, 한국부동산원)

운수업의 경우 여객 운송이 소폭 증가[220]하였으나 화물 운송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업은 주요 백화점 매장 리뉴얼 완료, 명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의 경우 여객 운송은 해외여행 수요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221]로, 화물 운송은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각각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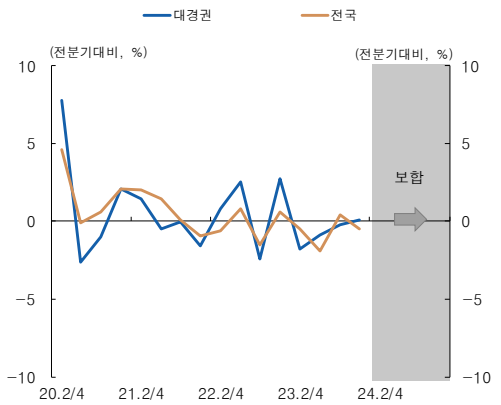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에도 내국인 및 연회매출 감소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서비스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의 경우 가전제품, 가구 등의 소비는 전분기보다 증가한 반면 승용차[222] 소비는 감소하였다. 준내구재 소비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레저용품, 의복 등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연료 판매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19) 2024년 4월중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숙박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줄어들어 전분기(-6.0%)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거 전후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단체행사도 예년 대비 감소하였다.
220) 2024년 4월중 대경권 공항(대구, 포항경주)의 월평균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각각 1,971편, 31.1만명으로 전분기(1,948편, 30.7만명) 대비 1.2%, 1.4% 증가하였다. (한국공항공사)
221) 2024년 4.1~5.18일 중 대경권 외국인 관광객 수는 4,439명으로 1/4분기(3,172명)에 비해 40.0% 증가하였다.(일평균 이동 통신 기준, 한국관광공사)
222)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월평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9,230대로 전년동기(10,178대, 월평균)보다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일반 음식점[223]등 외식 소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숙박업[224] 등 관광, 교육(학원) 및 의료(병의원) 서비스 등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소비는 여름철 휴가 시즌 도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화 소비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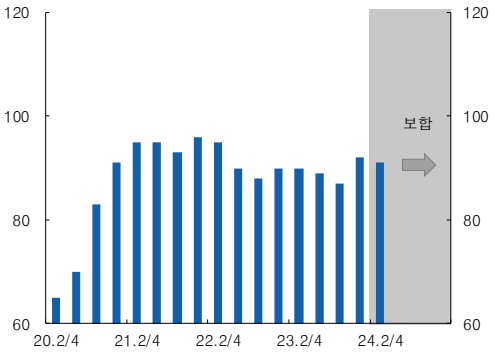
설비투자 보합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정체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계획하였던 설비투자를 진행[225]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는 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시설 확충이 마무리[226]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장비, 철강 업체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227]는 소재와 배터리 모듈·팩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부품[228]은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 수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학 등 일부 소재기업 등에서도 신성장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229]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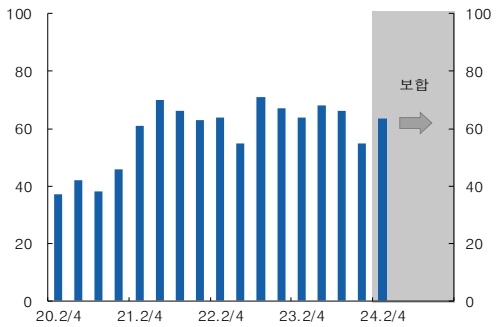
223)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요식업소 매출은 전분기대비 8.7% 증가하였다.
224)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에서 숙박업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줄어 전분기(+8.0%)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225) 5.3일 에코프로는 컨퍼런스콜 행사에서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판매 부진은 우려스럽지만 계획대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포항 산단 내 전구체 3·4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226) 발레오는 대구산단 내 자동차 주차보조 센서, 라이다,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3.29일)하였으며, 원익Q&C는 구미에 순도 높은 실리카 유리로 만들어진 석영제품인 반도체용 쿼츠웨어 제조시설을 준공(3.27일)했다.
227) 피엔티는 구미산단 내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27년까지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내에 1,293억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고효율 배터리 모듈·팩 양산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을 위해 구미산단 내 공장 신축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28) 하이엠케이는 구미에 전기차용 알루미늄소재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2025년까지 7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유림테크는 대구산단에 1,200억원을 투자해 연 35만대 규모의 하우징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229) 5.22일 도레이첨단소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총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도레이첨단소재는 2025년까지 경북 구미산단에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그 외 업종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보합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이 증가[230]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는 SOC 예산 집행이 감소[231]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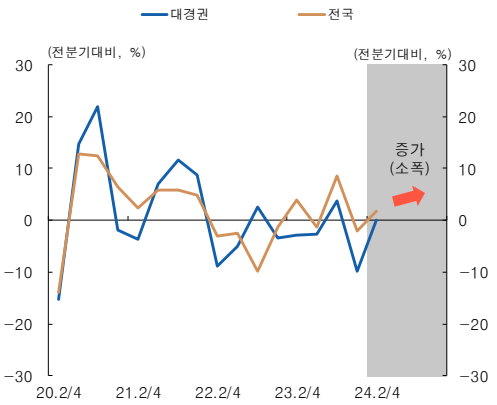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SOC 관련 관급공사[232]가 예정되어 있어 2/4분기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물량이 높은 수준[233]을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수주액[234]이 줄어든 영향으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소폭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 및 부품은 증가하였으며 기계장비, 섬유 및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소폭 감소, 디스플레이 및 철강은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30) 2024년 4월중 대구경북 건축착공면적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각각 3.3%, 60.2% 늘어 전체로는 44.9%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231)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월평균 예산지출액은 4,94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6%,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하였다. (지방재정365)
232) 5.8일 대구시는 총 사업비 1조 5,000억원 규모로 2027년까지 진행 예정인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3) 대구경북 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4월 18,864호(대구 9,667호, 경북 9,197호)로 전국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234) 4월 중 대구경북 지역의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3,333억원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33.7% 감소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은 국산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부품 수요부진이 완화[235]되면서 증가[236]하였다.

기계장비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타기계류 등에서 소폭 감소[237]하였다. 섬유는 섬유원료를 제외한 섬유제품, 섬유사 등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OLED 수출이 늘었으나 IT용 LCD가 큰 폭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철강은 인도 등으로의 수출물량이 전분기대비 감소하고 제품단가도 하락[238]하면서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미국과 동남아 등 글로벌 완성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휴대폰 및 부품, 이차전지소재,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및 부품은 온디바이스 AI 탑재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완제품 및 부품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원료가격이 반등[239]하고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국산 섬유의 해외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지속 및 지역 생산사업장의 설비 정비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은 글로벌 완성차 수요 감소로 현재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며 디스플레이는 IT용 LCD의 전방산업 수요 부진,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 증가[240] 영향이 혼재되면서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계장비는 주요국의 장비투자 수요 제약으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5) 애플사의 중국 마케팅 강화로 중국내 아이폰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24.1~2월 –37%→3월 +12%→4월 +52%, 전년동기대비)

236)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및 부품 일평균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이중 휴대폰은 12.4% 증가하였으며, 휴대폰 부품은 4.1% 줄어들며 전분기(-51.8%)보다 감소세가 대폭 줄어들었다.

237) 2024년 4~5월 중 대구경북지역 기계장비의 일평균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이중 약 40%(올해 기준)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은 19.6% 감소하였다.

238) 2024년 4~5월 중 철강제품 수출가격은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이 전분기대비 각각 9.2%, 23.1% 하락한 영향 등으로 3.7% 하락하였다.

239) 작년부터 이어진 리튬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안정화되고 있으나(2/4분기중 전분기대비 +12.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지역 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 판매단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있어 단가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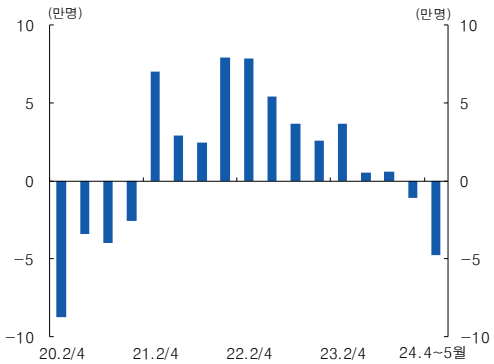
240)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잔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30% 증가 목표에 있으며 특히 LG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매출 점유율이 30%대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4) 고 용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4.8만명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1/4분기 수준(-1.1만명)보다 확대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는 전분기에 이어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전분기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241]가 감소 전환하였고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감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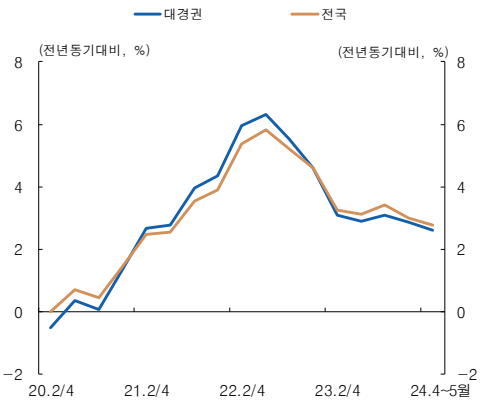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하여 1/4분기(2.9%)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류는 상승 전환하였으나 농축수산물[242], 전기·가스·수도, 서비스[243]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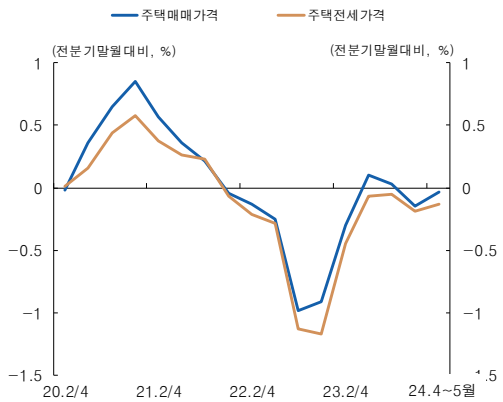
241) 4~5월 월평균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3만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가 0.9만명 감소하였다.
242) 과실류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4~5월 전년동기대비 3.7% 하락하였다.
243) 대구경북지역 외식비는 2022년 3/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2022.4/4분기 8.8% → 2023.2/4분기 6.8% → 2023.4/4분기 4.4% → 2024.1/4분기 3.7% → 2024.4~5월 2.9%,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감소

4~5월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3%로, 1/4분기(-0.15%)에 이어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의 경우에는 입주물량 감소[244] 등으로 소폭 상승(+0.08%)한 반면, 대구는 초과공급 상황[245]이 계속되면서 0.22% 하락하였다.

한편 4~5월 중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13%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0.23%)는 북구, 달성군 및 수성구를 중심으로, 경북(–0.07%)은 구미, 포항 및 경산을 중심으로 각각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44) 경북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4년 1/4분기 8,249호에서 2/4분기 4,343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114)
245) 2024년 5월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2로 2023년 11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2023.11월 81.1 → 2024.1월 80.5 → 5월 79.2, 100미만시 공급 > 수요)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부동산원)

6.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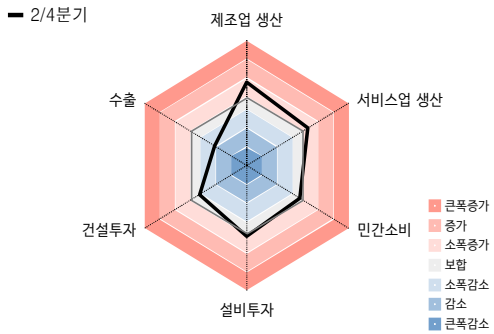
(1) 개 황

강원권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2/4분기 중 강원권 경기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및 제조업 생산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4~5월 중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되었다. 4~5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유지되었으며,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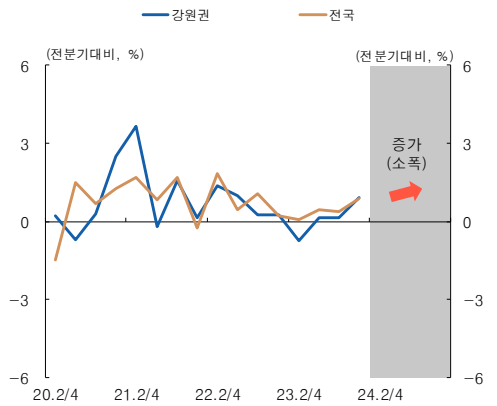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이 소폭 감소하고 부동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은 골프장 이용객 회복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상여건[246], 해외여행 둔화 등으로 관광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247] 늘어났다. 반면 도소매업은 승용차 판매[248]가 개선되었으나 대형소매점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거래[249]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46) 4~5월 중 강원지역 강수일수(월평균)는 영서 및 영동이 평년대비 각각 2.1일 및 2.2일 감소하였다. (기상청)
247) 4~5월 중 강원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전분기(-5.7%)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5월에는 전년 수준(99.5%)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248) 4~5월 중 강원지역의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3,414대로 전분기(3,180대) 대비 9.0%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249) 4월 중 강원지역 주택매매거래는 전년동기대비 24.2% 늘어나며 전분기(+36.8%)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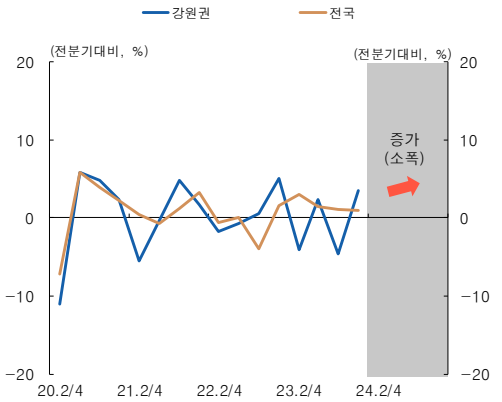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은 양호한 고용사정[250] 및 가계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이다.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은 국내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부동산업은 주택매수심리가 개선[251]되고 있으나 수도권 쏠림현상 지속,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252] 등으로 보합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선은 증가, 의료기기는 소폭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시멘트는 소폭 감소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의약품은 중국 등으로의 보톨리늄톡신 수출 증가, 콜레라 백신 신공장 가동[253] 등으로, 전선은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에 대한 견조한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의료기기는 주력 품목인 초음파진단기, 피부미용기기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환자감시장치 등이 종합병원의 보수적 투자 기조로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음식료품은 라면 수출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설날 효과[254]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다. 시멘트는 누적된 건축 착공물량 감소를 수출 확대[255]로 일부 상쇄하면서 감소폭이 제한되었다.

250) 4~5월 중 강원지역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86.9만명) 대비 0.1만명 늘어난 87.0만명으로 4, 5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51) 4월 강원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100 초과시 수요 우위)는 93.7로 전분기(91.9, 월평균)보다 1.8p 상승하였다. (한국부동산원)
252) 3/4분기 중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34세대로 2/4분기(1,834세대) 및 전년동기(3,086세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253) 5월 중 유바이오로직스의 춘천 제2공장 내 콜레라 백신 원액생산시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동사의 콜레라 백신 생산능력은 원액 기준 연간 3,300만 도즈에서 6,600만 도즈로 증가하였다.
254) 지난 1/4분기 중 식료품 생산은 늦은 설날(2.10일) 영향으로 명절 성수품 생산이 집중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55) 4~5월 중 강원지역 시멘트 수출은 전분기(월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각각 21.2% 및 53.2%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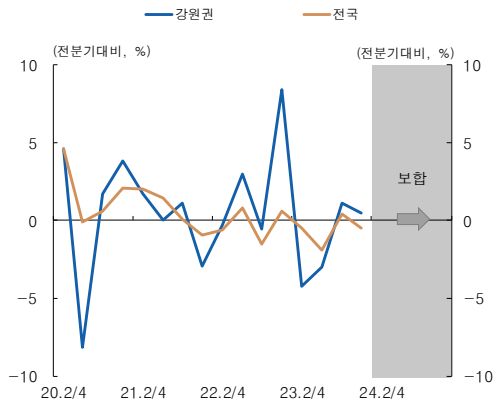
음식료품은 미국 등으로의 라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년보다 더운 날씨[256]로 여름철 성수기 주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초음파진단기 신제품 출시, 혈당측정기 영업망 재정비[257]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시멘트는 국내 건설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보합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화소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258], 스마트폰 출시 효과 소멸 등으로 가구·가전 소비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복[259]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차량용 연료가 증가하고 음식료품은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 관광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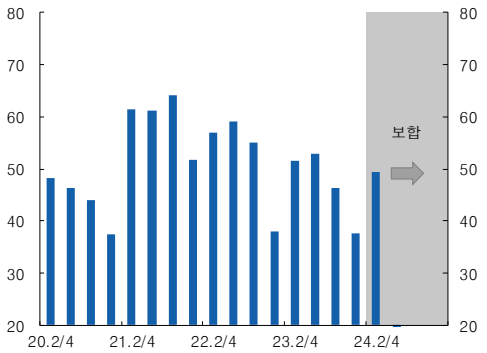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개선, 여름철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재화 및 서비스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56)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7월 및 8월 모두 80%로 전망된다. (기상청)
257) 아이센스는 작년 5월 유통채널 확보 등을 위해 동사의 주요 고객사이자 미국 및 유럽 지역의 판매망을 보유한 글로벌 혈당측정기 기업을 인수한 뒤 판매망 조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관련 매출 또한 정상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258) 2/4분기 중 강원권 아파트 입주 규모는 총 1,834세대로 1/4분기(3,760세대)에 비해 51.2% 감소하였다. (한국부동산원)
259) 4~5월 중 강원지역 의복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4% 줄어들었으나 전분기(-8.4%)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건설투자 보합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경우 신규 착공이 늘어나고[260)] 기착공된 공사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이 전분기에 집중[261)]되면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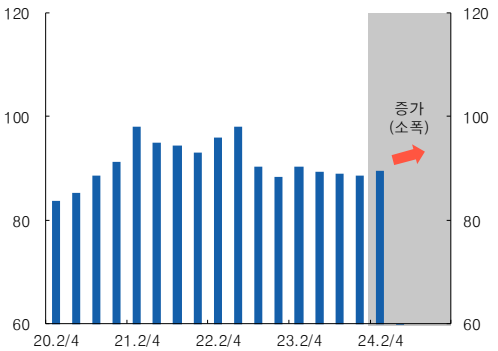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수주액이 회복세[262)]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축소된 신규착공[263)]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부문은 상반기 발주량 집중[264)]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소폭 증가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전선[265)]은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로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 음식료품은 신제품 개발설비 투자 등으로, 운수업은 택시용 중형 모델의 재출시[266)] 등으로 소폭 증

260) 4월 중 강원지역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117.2% 증가(주거용 +371.1%, 비주거용 +56.8%)하였다. (국토교통부)
261) 4~5월 중 강원지역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액은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하면서 전분기 증가(35.7%)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지방재정365)
262) 강원지역 건설수주액은 2023년 중 27.7% 감소하였으나 금년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263) 강원지역 건축착공면적은 2023년 2/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2023.2/4분기 –17.0% → 3/4분기 –20.4% → 4/4분기 –30.2% → 2024.1/4분기 –47.9%, 전년동기대비)를 지속하였다. (국토교통부)
264)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2024년 연간 공공공사 발주금액의 81.3%를 상반기 중 발주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청)
265)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4.6월부터 2025.9월까지 약 980억원 규모의 증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266) 현대자동차는 2023.7월 단종했던 LPG 쏘나타 택시 모델을 2024.4월 재출시하였다.

가하였다. 시멘트는 친환경 설비 구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레저, 숙박 등 관광 관련 산업은 관광객 회복 여부 불확실성으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투자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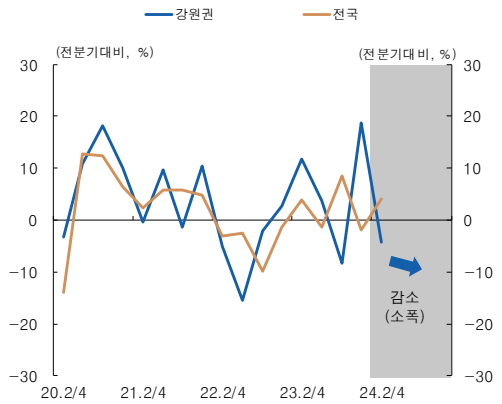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면류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견조한 해외 수요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나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업종은 업체들의 내수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함에 따라 소규모 투자만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소폭 감소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267] 품목별로는 화장품, 면류는 증가하고 의약품, 자동차부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선은 큰 폭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장품은 한국 제품 선호도 증가, 현지 마케팅 강화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268] 면류는 북미지역 라면 수요 확대, 중국 온라인 유통채널 정비 완료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269] 의약품은 콜레라 백신[27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톨리늄톡신이 중국을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일부 수출 차종의 단종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271] 반면 전선은 전분기 해저케이블 출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2/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7) 4~5월 중 강원지역 일평균 수출은 전분기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선(-41.1%)의 기여도는 –10.3%p였다.
268) 4~5월 중 강원지역 화장품 수출은 중국, 미국, 튀르키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38.9% 증가하였다.
269) 4~5월 중 강원지역 면류 수출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29.2% 증가하였다.
270) 4~5월 중 강원지역 백신 수출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78.6% 감소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금년 중 유바이오로직스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납품 예정인 콜레라 백신은 약 4,930만 도즈(수주금액 기준)로 전년대비 약 60% 증가(2023년 3,100만 도즈)했음을 고려하면 6월 이후에는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1) 4~5월 중 강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8% 줄어들며 감소세(1/4분기 –30.1% → 4~5월 –9.8%)를 이어갔으나, 전분기(월평균) 대비로는 11.6%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2023.4/4분기 –17.2% → 2024.1/4분기 –9.5% → 4~5월 +11.6%)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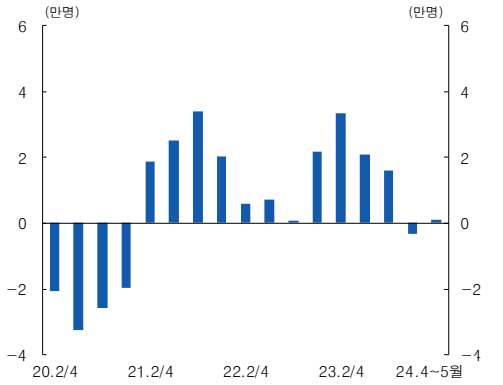
의약품은 보톨리늄톡신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콜레라 백신이 신공장 가동 등으로 반등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의료기기는 주력 품목인 초음파진단기의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면류 및 전선은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화장품은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11.11일)를 앞두고 일시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1만명 늘어나며 전분기 감소(-0.3만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업종별로는 농림 어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자영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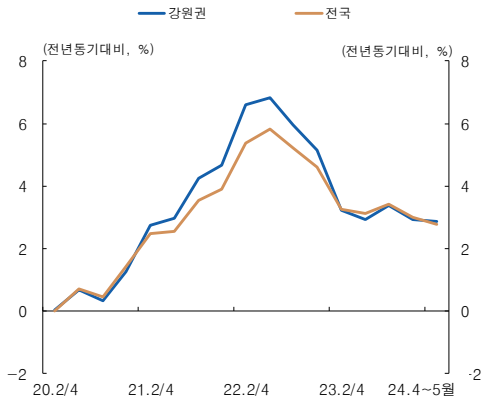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폭 유지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9%로 전분기(2.9%) 수준을 유지하였다. 상품 물가는 전기·가스·수도의 오름세 둔화[272]가 지속되었으나, 석유류가 국제유가 반등으로 상승 전환[273]되고 농축수산물은 과실류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274]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외식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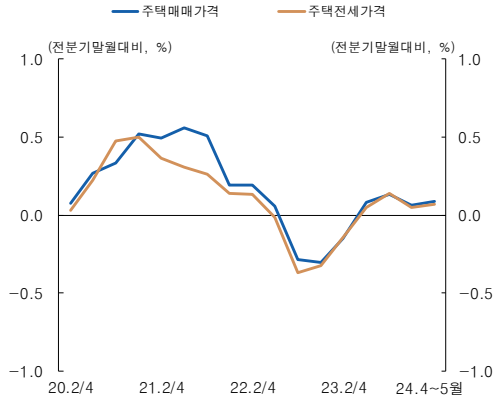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9% 상승하여 전분기(0.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도내 의대 정원 확대[275], GTX 개발[276] 등의 호재로 매수심리가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는 삼척(-0.04%) 등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동해(0.46%), 원주(0.27%), 속초(0.23%), 춘천(0.11%) 등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세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0.07% 상승하며 전분기(0.0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272) 4~5월 중 강원지역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5% 상승하며 1/4분기(+4.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273) 4~5월 중 강원지역 석유류 가격은 2023.1/4분기 부터 지속된 하락세를 벗어나 1.6% 상승으로 전환(2023.상반기 –11.1% → 하반기 –9.9% → 2024.1/4분기 –2.4% → 4~5월 +1.6%, 전년동기대비)되었다.
274) 4~5월 중 강원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과실(42.3%), 채소(11.9%)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오르며 전분기(+8.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과실류에서는 배(98.6%), 사과(97.5%)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275) 강원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대비 권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인재전형은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 안내')
276) GTX 추진계획에서 GTX-B 노선 종점이 춘천으로 확정되고, GTX-D 노선에 Y자형 원주 연장이 최종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 1.25일)

7. 제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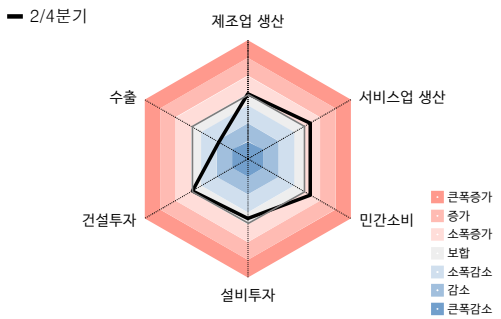
(1) 개 황

제주권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2/4분기 중 제주권 경기는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농축수산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하고 건설투자, 설비투자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출은 감소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1/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경기 레이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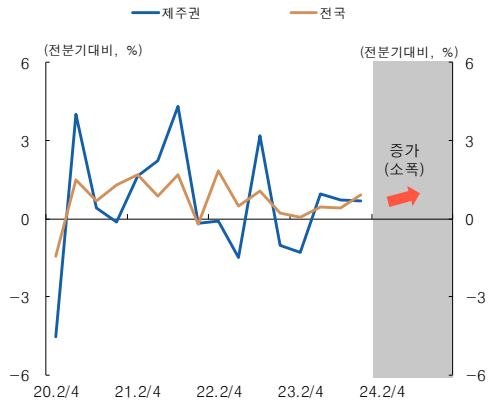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4년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숙박업, 카지노업이 증가하였고 여행업, 부동산업은 감소하였다. 임대업, 레저업, 정보통신업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도소매업은 면세점업이 외국인 소비패턴 변화[277)] 등으로 줄었으나, 전통시장[278)]과 일반 상점가 매출[279)]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280)] 등에 기인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한식·중식 음식점[281)]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77) 4월 중 외국인 대상 면세점 매출액은 1/4분기(월평균) 대비 20.8% 감소하였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점 쇼핑 비중이 감소한 데다, 하이난성 면세점 발달로 단체 관광객과 대리 구매상(따이궁)의 제주지역 방문이 줄어든 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78)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외국인 크루즈 이용객들은 매일올래시장 등 재래시장을 주로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79) 최근 제주 방문 중국인이 주로 쇼핑하는 장소를 보면, 면세점 위주에서 일반 상점가(올리브영, 다이소 등)으로 확대되는 등 지출항목, 방문지역이 다변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80) 4~5월 중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월평균)은 18.2만명으로 1/4분기 12.1만명 대비 51.2% 증가하였다.
281) 4월 중 요식업소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3.6% 상승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의 경우 국내선 운항편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국제선이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증가하였다.[282] 전세버스 가동률[283]은 외국 크루즈 관광객[284] 및 수학여행 방문[285]이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숙박업은 객단가가 높은 개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286]되면서 특급호텔 수요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관광객 및 단체 여행객 이용이 많은 콘도형 숙소 및 중저가 호텔이 소폭 개선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카지노업은 지난 분기 수준 대비 소폭 증가[287]하였다.

여행업은 지역내 고물가 인식, 국제선 공급좌석 확대(국내선 공급좌석 축소) 등으로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와 단체관광 수요가 모두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가격 약세[288]가 지속되고 거래량이 줄면서[289] 감소하였다.

임대업은 렌터카 가동률[290]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보합세를 나타냈다. 레저업은 골프장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타 레저가 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게임 업종 중심[291]의 정보통신업도 보합세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수준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제주지역 관광객은 외국인은 하계기간 제주 직항 노선 증편 계획[292], 크루즈 제주기항 예약 상황[293] 등을 감안할 때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경우 펜트업 효과로 증가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둔화[294]되겠으나, 제주방문 수요 회복세는 여전히 제한적[295]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특정 숙박업, 운수업,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개선세가 예상되나, 내국인 관광객 관련 레저업, 임대업(렌터카) 업종은 회복세가

282)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월평균)는 4~5월 중 13,504편으로 1/4분기 12,617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국제선은 4~5월 중 1,280편으로 1/4분기 1,151편 대비 11.2% 증가하였다.
283) 4월 중 제주지역 전세버스 가동률은 38.7%로 1/4분기 평균(16.0%) 대비 상승하였고, 전년동월(36.2%) 대비로도 소폭 상승하였다.
284) 4~5월 중 크루즈 관광객은 106,566명으로 1/4분기(월평균 39,456) 대비 170.1% 증가하였다.
285) 4월 중 수학여행 방문객은 26,460명(154개교)에서 39,857명(280개교)로 증가하였다.
286) 4~5월 중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은 -4.4%로 1/4분기(-10.0%)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아울러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여행 확대 목적으로 '6월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통해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국내여행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87) 도내 최대 규모(2023년 기준 8개 카지노 매출의 약 80%)인 드림타워 카지노는 5월 매출액이 271억으로 개장 이후 최대 월매출을 기록하였다. 4~5월 중 월평균 매출액은 237억으로 1/4분기 월평균 매출(233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88) 4~5월 중 제주지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 대비 각각 0.2%씩 하락하여 1/4분기(-0.3%, -0.2%)에 이어 약세가 지속되었다.
289) 4월 제주지역 주택매매는 각각 514건으로 1/4분기(월평균 531건) 대비 3.2% 감소하였다.
290) 4월 중 렌트카 가동률은 72.6%로 전분기(71.4%) 및 전년동분기(71.4%)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291) 2021년 제주지역 GRDP 대비 정보통신업 비중은 5.9%이며, 정보통신업 산출액 대비 제주지역 주요 게임업체인 네오플의 매출액은 41.7%를 기록하였다.
292) 하계기간 중 제주직항 기존 14개 국제선 노선에 더해 중국 5개 노선(다롄, 창사, 창춘, 하얼빈, 시안) 및 일본 1개 노선(동경 나리타)이 증편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운항스케줄에 따르면 하계기간 제주 도착 국제선 편수(1주 기준)가 4월 132 → 5월 152 → 6월 166 → 7월 202 → 8월 197편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293) 제주지역(제주항, 강정항) 크루즈 기항 신청건수(6.1일 기준)는 3/4분기 90편으로 1/4분기 52편, 2/4분기 87편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4)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해외여행 계획률은 2023.11월 49.4%에서 2024.4월 46.0%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95)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은 금년 2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은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 여행 소비자들이 저비용, 근거리 여행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비계 돼지고기 관련 논란 등 제주관광 관련 인식 악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보통신업은 신규 게임 출시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96]

제조업 생산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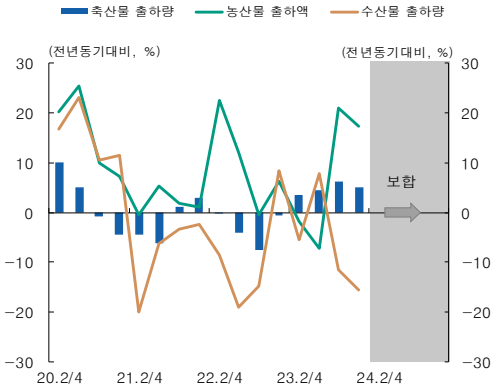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 대비 보합 수준을 보였다. 음·식료품과 의약품이 각각 관광객 수[297] 및 수출[298]이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기·가스업, 종이제품 등이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 수준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은 선행지표인 신규공사물량 부진을 감안할 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생산은 AI 수요확산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299]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축수산물 출하 보합

2/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는 1/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축산물이 소폭 증가하였다.

농축수산물 출하[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농산물은 마늘이 재배면적 축소 및 생육부진[300]으로 감소하였으나, 하우스 감귤은 경쟁과일(사과, 배) 가격 강세 등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출하액이 증가하였다. 축산물은 돼지[301]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수산물은 갈치와 넙치류가 각각 어획량 감소[302],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출하는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하우스감귤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출하액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산물은 내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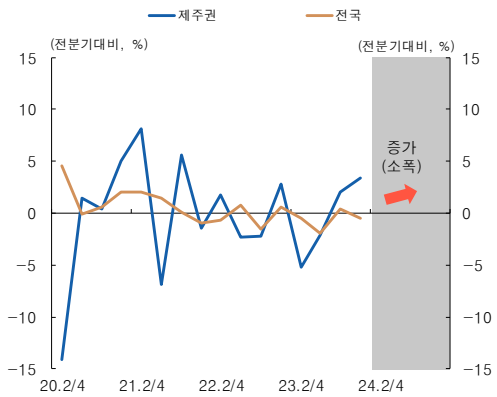
296) 지역 내 게임업체인 네오플은 주력 게임의 모바일 버전을 중국 내 출시(5.21일)하였으며, 출시 첫 주 1,9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297) 4~5월 중 관광객 수(125.7만명, 월평균)는 1/4분기(105.0만명) 대비 19.7% 증가하였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4분기 –0.2%에서 4~5월 7.6%로 증가 전환하였다.
298) 4월 중 의약품 수출은 전분기 평균 대비 55.2% 증가하였다.
299) 제주반도체는 통신모듈, 스마트 검침기, CCTV 등 5G IoT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온디바이스 AI 적용 우선순위가 높은 디바이스들로서 관련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8.1% 감소한 데다, 이상기후(강수량 증가, 기온 상승)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마늘'이 증가하여 피해면적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주농업기술원).
301) 4월 중 돼지 출하량(두수)는 81,137으로 전분기 평균(79,777) 대비 1.7% 상승하였다.
302) 서해 지역 수온 상승에 따라 따뜻한 물에 서식하는 갈치류가 제주 해역으로 내려오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증가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는 보합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는 의복·신발 등 준내구재, 연료 등 비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판매 등 내구재가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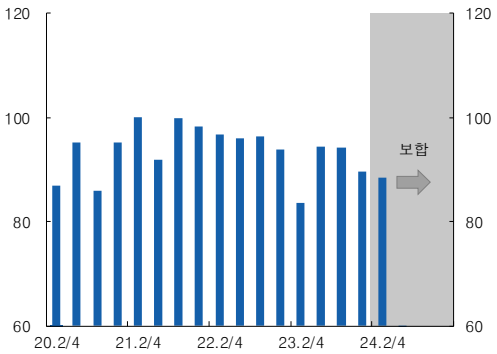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지역 내 거주자(도민)의 경우 소비심리 개선[303]의 영향으로 요식업 등이 소폭 증가[304]하였으며, 관광객 소비는 레저업, 문화 취미 등이 증가[305]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관광경기 회복, 내수 진작 대책[306] 등에 따라 2/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등을 위주로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투자 보합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상 유지 수준의 투자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콘도, 리조트 등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등은 시설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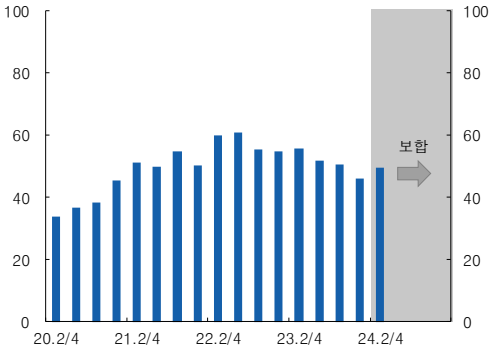
303) 4~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7.6(월평균)을 기록하며 전분기(94.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304) 4월 중 도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1/4분기 대비)은 요식업이 1.7% 상승하였다.
305) 4월 중 도외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1/4분기 대비)은 레저업이 42.4%, 문화취미가 21.5% 상승하였다.
306)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함으로써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4,555억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업체들은 경기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간의 인건비, 원자재, 공공요금 상승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향후에도 설비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지역 항공사의 하반기 중 예정된 항공기 투자,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주항공 관련 투자[307]는 향후 설비투자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보합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공공부문은 SOC 관련 예산 조기 집행[308]에 기인하여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누적된 주거용 건물 신규 수주[309] 부진 및 착공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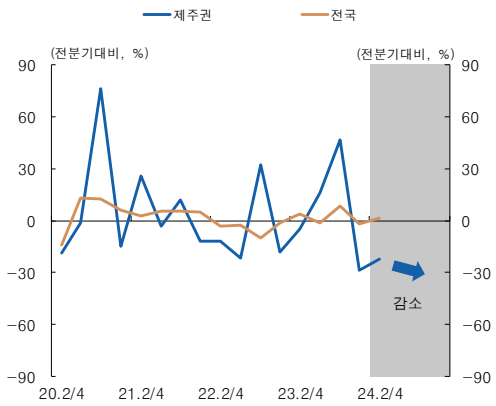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310], 분양 수요 위축[311] 등은 부진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나, 연내 실행 예정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312]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이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7)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4.29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한화시스템 연관 9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1,000억원 가량 금액이 센터에 투자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308)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예산 중 77.4%를 집행하였다(24.6.4일 기준).
309) 4월 중 제주지역 민간 건설수주액(전분기대비, %)은 62.6% 줄면서 1/4분기 –7.7%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310) 모니터링 결과 지역 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미수금 증가로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고, 폐업 업체도 지난 해보다 증가하였다(건설사 신규 폐업 수(개) : 23년 77 → 24년 1~4월 34(23.1~4월 27)).
311) 다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위파크제주, 1,401세대) 착공이 하반기 중 시작되면, 민간부문의 공사물량 감소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12)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숙박·레저업 관련 대규모 건축공사(7개 사업장, 5,130억)가 착공될 계획이다.

수출 감소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313]되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주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화장품이 감소하였다.[314]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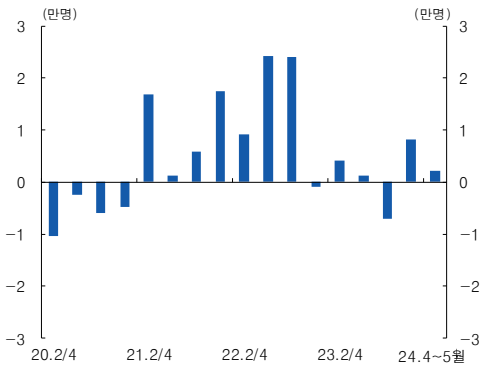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2/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AI발 글로벌 수요 증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산물은 넙치[315]와 건조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고 용

취업자수 증가폭 소폭 축소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2만명 늘어 1/4분기(0.8만명)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업종별[316]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가 무급 가족종사자가 늘면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임금근로자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줄면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가[1]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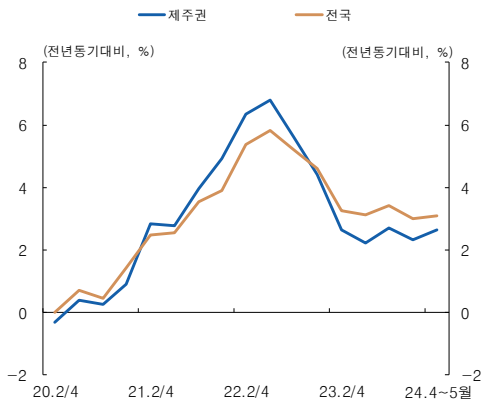
313) 4~5월 중 제주지역 일평균 수출액(54.9만 달러)은 1/4분기에 비해 22.5% 감소하였다.
314) 4~5월 중 집적회로 반도체 수출은 전분기 대비 15.1% 감소하였고, 화장품 수출은 60.2% 감소하였다. 4~5월 중 반도체 수출액(월평균)은 약 748만달러로 지난 해 하반기 급증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작년 동기간 평균 수준(약 675만달러)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315) 제주도청은 활넙치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해상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2024.5.7일).
316)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1/4분기 → 4~5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서비스업 +1.6 → +1.1, 농림어업 –0.3 → –0.2, 건설업 –0.2 → -0.5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4% 오르며 전분기(2.3%)에 비해 소폭 확대되었다.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과실·채소 등 농산물 가격[317]이 기상 및 수급여건 악화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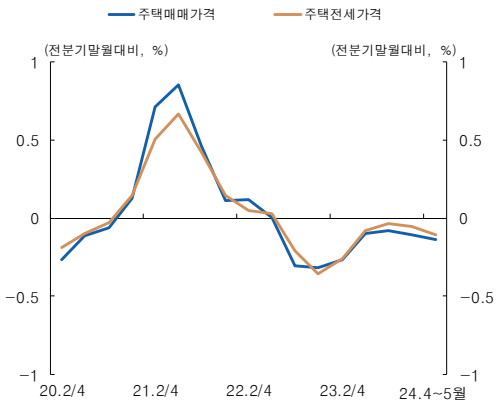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1% 하락하여 1/4분기(-0.1%)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매수심리 위축[31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0.2%, 서귀포는 0.1%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은 0.1% 내려 1/4분기(-0.1%)에 이어 하락폭이 지속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1)2)]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317) 4~5월 중 제주지역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1.6% 올라 1/4분기(+18.3%)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18) 4~5월 중 제주지역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87.7으로 1/4분기(87.7)와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이다.